금주일언 구차하게 살면서 부끄럼 없어 마치 저 새가 부리(喙)가 긴 것 같고 얼굴가죽 두껍게 욕(辱)을 참는 것 그것을 더러운 삶이라 하느니라 〈법구경·진구품 8절〉

東大新聞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겸 주간 최순열
부주간 이준성
편집국장 이익성
편집장 김소영

펴낸 곳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260-3192)
FAX(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770-2057)

제 1179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5년(불기2539년) 8월28일 (월요일)

서울캠 조경 공사 막바지

공사비 2억5천만원 투입

깨끗하고 쾌적한 캠퍼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교정 조경공사가 8월말 완료된다.

약 2억5천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공사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소나무 2백1주 외 1천4백주의 식재와 후문 옹벽의 미관처리, 학림관 앞의 인공폭포와 체육관 쪽의 수목터널 조성, 만해광장 언덕의 자연석 쌓기 등이다.

관재과(과장=하정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대해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애착을 갖게하고 대학 평가에도 대비하는 측면"을 강조했다.

많은 학생들이 의문을 갖던 체육관쪽 수목터널에 대해서는 "등나무를 심어 현재의 철골구조를 타고 자라게 할것"이라고 설명하고 "얼마안가 동국대학교의 명물이 될것"을 자신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 대해 학생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건물내 부구조 개선,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이 후속적으로 보완,확충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직·직원 인사이동

경주 김갑주 부총장 유임

학교당국은 지난 1일자로 사무처장에 송재운(국민윤리학) 교수를 임명하고 지난 25일자로 경주캠퍼스 부총장에 김갑주(국사학·유임) 교수를 임명하는 등 보직인사 및 과장·계장급 인사와 직원 인사를 단행했다.

개편된 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캠퍼스〉

△재단사무처장=송재운(이상 8월1일자)

△교무처장 겸 연구교류처장=장오현(경제학) △동대신문사 편집인 겸 주간=최순열(국어교육) △컴퓨터교육원장=홍영식(컴퓨터공학) △연구부장=정태섭(역사교육) △학술교류부장=이원부(정보관리학) △여학생부처장=임돈희(사학) △공보실장=박상호 △학생처장학과장=오종호 △기획계장=이광구 △행정대학원 교학계장=박승종 △기획조정실 예산조정과=윤영식 △교무처 학적과=김병호 △대학원 교학부=박종권 △이부대학 교학과=신동준(전산원파견직원) △공보실=변재덕 △연구부학술계장서리=박상관 △연구교류처 연구부=박정순 △학생처 취업과=김영수

한편 직위승진은 다음과 같이 이뤄졌다. △의료원 구매과장서리=박정우 △공보계장서리=정경훈 △연구계장서리=이창학 △학술교류계장서류=김청옥 〈이상 8월25일자〉

〈경주캠퍼스〉

△부총장=김갑주(국사학·유임) △교무처장=김선학(국어국문학) △자연과학대학장=최상범(조경학) △학생처장=이한구(철학) △이부대학장=김선정(법학) △외국어교육원장=이석장(영어영문학) △컴퓨터교육원장 겸 전자계산소장=이태경(전자계산학) △학술연구부장=홍광표(조경학) △학생과장=김병수 △장학과장=김웅기 △열람과장=황래열 △학술연구부 학술계장=권대흥 △취업과 취업계장=신익종 △교무처 학술연구부=김성규 △학생처 취업과=유인수 △이부대학 교학계장=박용하 〈이상 8월25일자〉

6·27 지자체 선거 동문 11명 당선

지난 6월27일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이정규(정치60졸)씨 등 본교 동문11명이 자치단체장에 당선됐다. 집계된 동문 자치단체장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

△권상국(경제73졸)=무소속, 경북 예천군수 △김선홍(법65졸)=민주당, 인천 강화군수 △김원창(경제71졸)=민자당, 강원 정선군수 △김일수(경제연구)=민자당, 경기화성군수 △설송웅(수65졸)=민주당, 용산구청장 △송달용(응용생물58졸)=민자당, 경기 파주군수 △오규석(한의94졸)=민자당, 부산 기장군수 △이규상(경제58졸)=민자당, 부산 동래구청장 △이배영(행정대학원83졸)=민주당, 은평구청장 △이정규(정치60졸)=민주당, 전북 남원시장 △전광순(지역개발원)=민자당, 경북 울진군수.

총장, 미 자매교·동문회 방문

자매교 교류활성화 논의 동문회 22만불 모금

송석구총장은 지난 7월25일부터 8월3일까지 본교 자매교인 미국 하와이대, UCLA, 뉴욕주립대, 메인주립대 등을 순방하고 미국내 LA동문회등 지역별 동문회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자매대학과 대규모적으로 실질적인 교류모색을 목적으로 시작된 이번 자매대학 방문에서 송총장은 각 대학 총장, 부총장 등을 만나고 한국학 관련 연구소 등을 방문해 동양문학, 철학, 불교학 등에 관한 교류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송총장은 북미동문회의 제동문들이 총22만불(약1억6천4백만원)의 발전기금을 본교에 기탁한다는 약정을 받아왔다.

구체적 내역을 보면 본교 LA동문회는 김경재(농69졸)회장을 중심으로 90주년 개교기념식까지 10만불을 모금할 것을 약정했고 이태근(전 정외과 교수)동문은 현금 1만불을 기부했다.

뉴욕동문회는 최규민 회장을 중심으로 10만불 모금을 약속했고 배시영(경제62졸)동문은 송총장·재임기간 동안 매년 1만불씩 기부할 것을 약정, 토론토 최종기 회장은 2만불을 약정했다.

이에 대해 송석구 총장은 지난22일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동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금에 참여한 동문에게 감사한다"고 밝히며 "전동국인의 학교발전에 능동적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인터뷰에서 송총장은 지속적인 교육개혁, 캠퍼스 환경개선, 야성적인 학생활동의 개방과 지도, 행정쇄신 구획등 2학기발전 전망을 제시했다. 〈관련인터뷰 10면〉

제5차 규정집 발간

기획과(과장=조원생)는 제5차 규정집을 지난 7월 발간했다.

92년도에 발행된 제4차 규정집이후 3년만에 발간된 이번 규정집은 그동안의 제도 흐름, 사회정책변화 등에 의해 개정된 내용을 담고 있다.

2학기 신규교수 20명 채용

채용연기학과, 학교당국에 근거제시 요구

95학년도 2학기 신규교수로 총16개 학과에 서울캠퍼스 14명, 경주캠퍼스 6명등 총20명이 채용되었다.

이번에 채용된 신규교수를 학과별로 살펴보면 서울캠퍼스 경제학과 경영학과 각 2명, 영문학과, 중문학과, 전산통계학군, 신방과, 회계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교육학과, 지리교육과, 가정교육과에 각각 1명이다. 〈신규교수 프로필 10면〉

경주캠퍼스는 한의학과, 의학과, 각각 2명, 불교학과, 관광경영학과 각각 1명이 채용되었다.

이번학기 교수채용은 28개 학과에서 총51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13개학과가 다음학기로 연기되었다.

이에 대해 국어교육과및 반도체학과등 교수채용이 연기된 학과들은 학교측에 명확한 연기이유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신규교수로 채용된 20명의 교수는 오는 9월1일자로 발령된다.

9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9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증강당에서 진행됐다.

오녹원이사장, 송석구총장, 황명수동창회장 등의 내외인사와 학위취득자 2백42명이 참석한 이번 학위수여식은 학사보고, 학위수여, 총장식사, 이사장 치사, 동창회장 축사의 순으로 치뤄졌다.

박사 40명, 석사 73명, 연구·관리자과정 1백41명 등 총 3백82명 졸업생의 현황을 각 대학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원 박사 40명, 석사 73명 △불교대학원 석사 5명, 연구과정 1명, 관리자과정 49명 △행정대학원 석사 37명, 관리자과정 34명 △경영대학원 석사 28명, 관리자과정 37명 △교육대학원 석사 43명, 연구과정 1명 △정보산업대학원 석사 12명, 관리자과정 8명 △산업기술대학원 석사 4명, 관리자과정 10명 등이다.

지역개발대학원(원장=김병기·국제경제학)은 지난 25일 소강당에서 김갑주 부총장, 김병기 원장, 각 단대 학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95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

졸업자는 만 66세 박정석씨를 비롯한 석사 학위 취득자 5명, 관리자과정 42명등 총 47명이다.

〈석·박사 프로필 6·7면〉

교외 수탁연구교수 23명 선정

외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일정기간 특정부문을 연구하게되는 교외 수탁연구에 본교 교수 23명이 선정됐다.

수탁연구 교수현황을 살펴보면 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부문에 △서태룡(국문학) △김정근(영문학) △박명희(가정교육학) △이종찬(국문학) △조영록(사학) △김필수(철학) △홍기삼(국문학) △서운길(불교학) △김선정(법학) △최준상(수학교육학) 지방대 육성부문에 △윤혜미(사회복지학) △서석호(의학) △김희수(의학) 신진연구부문 △장성재(철학) △김종일(경제학) △이건(사회학) △곽문규(기계공학) △최은만(컴퓨터공학) △임종주(화학공학) △이승주(식품공학) 과학재단의 특정기초 △성용길(화학) △여인형(화학) △김상규(토목공학)

보 리 수

경쟁과 공존

광신적 종교집단이나 극렬한 정치집단이 갖는 하나의 공통점은 '절대유일의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가치관이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승리자가 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사람은 자기가 신봉하는 그 이데올로기의 잣대로만 세상을 재려고 한다. 그에게는 다른 사상이나 이념은 모두 배척하고 적대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그러다보니 그 '무슨 주의를 위해 몸을 던지고 격렬한 투쟁의 길로 나서게 된다.

무슨무슨 종교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 따위의 광신적 종교행위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게 있어 다른 종교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박멸의 대상이다. 심한 경우 그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전쟁도 불사한다.

종교나 정치에서 이렇게 극단화된 사고는 우리들의 일상적 삶의 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어떤 젊은이는 탤런트나 가수가 되는 것만이 자기인생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가치요 의미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다른 직업, 예컨대 농사를 짓는다거나 자동차수리를 한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무가치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입시생에게는 오직 합격만이 전부다. 낙방은 패배요, 패배는 곧 죽음이다.

그러나 이런 광신적이고 극단화된 가치관이란 한발자욱만 물러서서 바라보면 금방 허구성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인생은 돈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떤 의미에서든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인생은 돈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으므로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는 궤변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출세를 한다거나 대학을 간다거나 사랑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 당시에는 그것만이 최상의 가치이고 다른 것은 모두 무가치해 보이지만, 조금만 시각을 달리하면 그것이야 말로 어리석음이고 허위의식일 수도 있다.

세상에는 어떤 절대불변하고 유일한 가치관이란 애초부터 없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적(緣起的)가치관'이라고 한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므로 이것도 없다는 논리이다. 오른손이 없으면 왼손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왼손과 오른손의 공존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우리의 삶은 공존의 논리보다는 경쟁과 대립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각자 정해놓은 절대유일의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긴장된 경쟁을 일삼는다.

그런 살벌한 광야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생각부터 바꾸어야 한다. 경쟁의 논리에서 공존의 논리로.

홍사성

불교TV제작국장

본사 18대 주간 최순열 교수

본사 18대 주간에 최순열(국어교육)교수가 지난 25일자로 임명됐다.

신임 최주간은 72년 본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현재 본교 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 동대교육방송국 주간, 학생처장 및 본사 14대주간을 역임한 바 있다.

수강신청 확인 오늘부터 30일까지

교무처(처장=장오현·경제학)는 95년도 2학기 수강신청확인을 오늘부터 30일까지 3일간실시한다.

이 기간동안 전교생은 각 대학 교학과나 학과를 통해 수강신청확인을 마쳐야 하며 이번학기 복학, 재입학생은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알 림

이번 제1179호 개강호부터, 발행일이 월요일자로 바뀝니다. 이번 월요일자 발행을 계기로 더 나은 동대신문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PC통신 기사 제공 서비스 개시

하이텔 마을에 동대신문 사옥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Welcome to DGU 10

이제 전자 섹션신문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 9월중 천리안, 나우누리에 기사제공 서비스를 개시함

하이텔 동국대 통신동호회 10번 게시판

하이텔에 접속하신 후 'go dgu10' 명령을 하시면 곧장 동대신문게시판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7월27일자로 전용게시판이 개설된 이후, 보다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 서비스를 위해 여름방학중 20여개 대학통신동호회 대학신문게시판을 검색하여 2학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섹션 신문

신문을 보고 필요한 기사를 오려 따로 스크랩하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취재, 사회, 문화, 여론, 칼럼, 사설등 분야별로 기사가 제공됩니다. 또한 필요한 기사를 제호, 면별, 기사제목 등의 주제어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가 만드는 신문

독자 참여공간이 넓어집니다.
열린글터, 동악광장은 물론 기사, 문학작품등 독자의 손으로 꾸며진 글을 신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투고의 경우 DGU10번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go mail' 편지쓰기를 통해 ID' dgpress 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투고글의 경우 소정의 고료를 지급합니다. 또한 자기주변의 사사로운 일이나 불편을 느끼시는 일에 대해 제보를 해주시면 신문에 반영합니다.

정보 심부름 센타

더이상 두툼한 신문철을 뒤적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독자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신문에 실렸거나 신문사가 보유한 정보에 대해 문의하시면, 개인메일을 통해 성심껏 답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정보가 있으면 먼저 DGU10번 게시판을 들러 주십시오.

독자 모니터 광장

이제 큰 목소리로 기자들을 호통칠 수 있습니다.
기사, 기획, 광고 등 신문 전반에 걸친 독자들의 의견은 더 생동감 있는 신문제작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동 대 신 문 사

5·18 불기소 결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

역사에 부끄럼없는 법적 해결토록

우리 동국대 교수들은 이번 5·18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상황에 대해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5·18검찰수사 종결은 단순한 한 사건의 종결이란 과거형으로 될 수 없고, 모든 국민의 역사의식이나 도덕성에 심대한 우려를 금할수 없다. 이러한 반역사의식에 기초한 검찰발표문을 접하면서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지도자를 교육하는 대학 교수들로서 참담한 심정일 뿐이며 과연 우리가 대학에서 앞으로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금할 수 없다. 그리하여 전 국민 각계각층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촉구하고 정부당국에게는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법적 해결을 내리도록 요구하면서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광주에서의 학살 행위에 대해 "정치적"시각을 적용하거나 우발적사고에 의한 "사태적"시각을적용하거나 어느쪽을 취하든 가해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헌정문란의 폭동으로 내란죄를 구성할 것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무고한 양민 학살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인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월권이나 불기소 처분의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이 사건의 해결은 검찰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당국의 해결의지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있다. 따라서 당국은 이 사건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윤리성이 걸린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사건 해결이 이런식으로 유야무야될 경우 자라나는 세대들이 수단방법을 가리지않고 심지어 인명살상을 해서라도힘을 가지면 무죄로 될 수 있다는 위험한 도덕, 역사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현 정치권도 국민의 마음속에 희망과 신뢰의 싹을 심기 위해서 현재 진행중인 이전투구의 정파싸움을 중지하고 현행법내에서 다른 방도를 찾든지 특별검사제를 입법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 그들이 내세우는 정강은 모두 위선이고 사리사욕의 산물이라는 정치적 냉소주의를 국민 사이에 팽배시켜 급기야는 스스로 자멸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문제의 해결에 적극 동참해야 할것이다. 남한 내에서조차 한 지역의 아픔을 보듬지 못하고 가슴에 못을 박는다면 현재 논의중인 통일에 대한 비젼은 환상에 불과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역사적 소명은 편협한 지역주의와 역사적 냉소주의에 의해 갈가리 찢기고 멍든 조국을 우리 다음 세대에 넘겨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1995년 8월9일

서명교수 62명 일동

◀열린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십시요. 하이텔을 이용하실 경우, DGU 10번게시판이나 ID; dgpress메일을 통해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8·15 민족공동행사, 대중적 흐름 창출

통일 운동 세력의 분열 극복돼야

얼마전 우리는 실로 분단 50년의 역사속에서 중요한 통일행사를 마쳤었다. 남한 통일운동 세력의 총결집과 그속에서의 통일운동의 대중화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8·15민족공동행사라는 통일운동의 대전환기를 마련하였다. 8·15민족공동행사 준비위는 기간에 남한 민간통일운동을 주도해왔던 전국연합 대의원대회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지난 4월22일 1백40여개 단체를 망라하는 속에서 힘있게 출발하였다. 참가단체만 놓고 보더라도 95년 통일운동의 대중화에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매우 주목할만한 일이었다. 한편 4월 베이징에서 열린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에서는 민족공동행사와는 별도로 제6차 범민족대회를 추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8·15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에서는 2개의 대회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실제 치루더라도 공동행사장 안에서 부문별 행사로 치루기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위상과 내용에 있어서 차이점을 지닌 두개의 대회가 같은장소(서울대)에서 치뤄지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았고, 상당한 혼란을 느껴야만 했었다. 95년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이야기하면서 통일되지못한 모습은 대중에게 아이러니한 감정을 주지않았나 생각된다.

문제는 기간 범민련과 범민족대회의 한계에 대한 남한 통일운동내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범민련 주도의 제6차 범민족대회는 강행되었다는 점이다. 통일운동이 점차로 정치운동, 대중운동, 시민운동, 부문운동 등 몇가지 중요한 운동으로 분화발전하고 있고, 이와함께 동시에 보다 확대되고 유연한 연대틀이 필요함이 요구되는 지금에 있어서 대중결합의 한계를 지닌 기간 범민련식의 통일운동은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8·15민족공동행사는 기간 범민련에서 이탈했던 제반 단체를 포괄하고 통일운동의 대중적 흐름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발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범민련의 발상적 전환, 통일운동 세력의 분열극복 등 중대한 과제가 남겨져 있다.

나 상 원
(법과대 법학과)

식당운영의 합리화 방안

다양한 식단 개발 위한 식대 현실화

시설 개보수등 환경개선 필요

현재 우리대학의 식당은 공간상의 제약(비좁음 및 시설낙후)및 낮은 식대등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대학식당의 정형을 창출하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식대는 최근 6, 7년 동안 묶인 가격으로서 현재적 수준의 질 보장에도 많은 경영 악화등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식사 질에 대한 보장의 요구는 다양해지는 입맛과 더불어 늘어났으나, 식대 인상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은 거부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시대적 변화와 이용자들의 식사 취향 및 급격한 변화, 현재의 질과 가격수준으로는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기에 새로운 식당 운영의 형태가 창출되어야 할 시기 입니다. 그리하여 복지사업 공동관리위원회에서는 식당 운영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위하여 몇가지 운영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

작금에 있어서 먹거리 문화는 위생상의 문제는 기본으로 이루워지면서 단순히 입으로 느끼는 미각뿐만 아니라 시각적 효과 또한 크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공관위에서는 장단기적 계획속에서 시설 개보수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한다. 먼저 금년 여름 방학기간에 계획하고 있는 동국관식당 개보수를 필두로 차차 급수시설, 세정시설, 냉난방시설, 잔반처리시설등 계획적 추진이 계속적으로 이루워져야 할 것이다.

식당에서의 경영은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수지 균형은 이루워져야 한다고 본다. 식당운영 경영상태는 우리 공관위 사업, 나아가 생협건설 이후에도 우리 사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경영을 합리화 하기 위한 방안을 몇가지로 정리하면, 이용자들의 입맛이 변해가는 추세를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식단이 개발되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기존의 고정적인 식대를 탈피하여 식단에 따라 변화 있는 식대가 이루워져야 한다. 기존 7백, 9백원(1천)식대를 7백원에서 1천5백원까지 다양화하여 메뉴개발과 질적 보장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실험적으로 시행한 결과, 이용자의 반응은 대체로 좋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직구매 폭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매입 원가 비율을 줄여 나가고자 한다. 95년 1월 이후부터 시행하여 전체 매입 원가 비율의 7%정도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이는 매년 느끼는 급여 인상에 대한 부담을 일부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앞에서도 제기 했듯이 식당의 문제는 단지 식사의 질과 가격으로만 바라볼수 없는 총체적 사안이다. 대학구내 식당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사의 질적 보장과 경영수지의 개선, 직원관리 및 식사 환경 개선 또한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상은 강화될 수 있다고 본다.

장 원 식
〈복지사업공동관리위원회〉

'보고싶은 학우들에게'

일본 과거사죄·군국주의 부활음모 중단 해야

사랑한다는 말보다 보고 싶다는 인사가 먼저 필요할 것 같은 일만 동악 학우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6월 6일, 와타나베 전 일본외상의 망언에 분노하여 일본문화원 화염병시위에 참가했다, 구속된 문과대학 사학과 92학번 김용구,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91학번 김정수입니다. 이제 다시 학교와 학우들에게 돌아가면서 그동안 두달여 기간동안 교수님과 여러 학우들이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에 감사를 들리며 이글로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올해는 세계적으로 종전 50돌의 되는 해입니다. 세계 각 국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각종의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일본도 여러행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사는 주로 요코하마. 나가사끼의 원폭에 대한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아시아의 각국이 행하는 기념행사의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자신들도 전쟁의 피해국, 즉 세계 유일의 원폭 피해국이라는 것만을 부각시키고 자신들이 아시아의 각국와 민족들에게 행한 참혹한 죄악들은 교묘하게 은폐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위를 하게된 계기가 된 와타나베의 망언이 채 식기도 전에 시마무라 문부상의 망언이 뒤어나오고, 그들의 망언에 세계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자위대의 군비증강과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자위대)의 역할 증대. 그리고 프랑스와 중국의 핵실험 강행에 반대하는 일본의 은밀한 곳에는 다량의 플로토늄의 축적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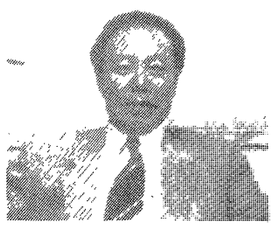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음모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하지만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작금의 망언들과 관련한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 백이면 백 모두가 분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하나 나서서 항의하고 규탄하지 못해왔습니다. 정부 또한 미온적인 대처로 대부분의 국민의 가슴에 실망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구총독부건물을 해체하고 지명을 고치고 항일운동가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등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영원을 담고 행하는 것이니만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광복 50주년이라는 기쁨뒤에는 분단 50년이라는 아픔이 아직 치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단을 극복하고 조국통일의 길에 나서야 할것입니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된 조국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일제 잔재 청산이 되는 것입니다. 통일의 길에서 우리 일만 동악 백만 청년이 할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구태여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음모를 중단하고 과거를 사죄·보상하고 국회의 부전결의를 통해 세계 평화에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 일본을 동반자로서 포용할 것입니다. 일만 동악학우여러분 조국의 자주·평화통일과 민족대단결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1995. 8. 19
정수·용구 올림

김정수(사범대 지교과)
김용구(문과대 사학과)

동/문/칼/럼

무신불립(無信不立)



올해는 해방된지 50년이 되는 해로서 우리나라도 어느새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로 진입해 가고 있다. 2만5천 달러를 넘어서서 세계 최고 소득권에 랭크되어 있는 일본에는 미치지 못한다 해도 불과 30여년 전에 1인당 국민소득 1백달러 미만을 생각한다면 장족의 경제 발전을 가져왔다.

이제부터 우리는 WTO체제의 출범으로 지역적 단위를 국가가 아닌 지구촌 즉, 국경이 없는 사회를 전제로 물자, 인력 및 정보가 자유로이 이동하는 세계화시대에 살게 되었다. 정부에서도 세계화를 국정의 지표로 삼고 선진국 진입을 위해 국민각계 각층의 의식구조와 행동양식을 국제 규범이나 세계 수준에 맞추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할 덕목은 무엇일까? 여러가지 생각할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루속히 신용사회를 구축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일찍이 공자(孔子)는 수제자인 자공(子貢)과의 문답에서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철리를 강조했다. 즉, 신용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국가나 한 민족이 국제사회로부터 신용과 공신력을 잃어버릴 경우에도 예외가 될수 없다. 그러한 나라도 세계에서 설 땅이 없어지고 만다. 개인이나 기업, 국가모두 신용을 잃어버리면 딛고 설 땅이 없어지는 것이다. 공자의 무신불립은 세계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만고 불변의 진리라 생각된다.

신용을 얻게되는 근본은 무엇일까? 그것은 정직해야되고, 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언행일치(言行一致)해야 한다. 실패한 사람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들은 자기의 실패를 제도나 타인의 잘못에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자기의 언행에 책임을 질수 있는 강인한 자존심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무신불립이라는 공자의 말은 21세기의 주인공이 될 젊은 여러분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생활의 진리이며 오늘의 동국인 모두가 갖춰야할 덕목이라 생각한다.

김 진 문
〈신성약품(주)대표이사·경영71졸〉

잠깐주목

하나

모니터 요원 모집

동대신문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학내 여론을 함께 선도해나갈 모니터 요원을 모집합니다.

이번주 금요일까지 학생회관 지하 동대신문사로 오세요.

여러분의 열정을 기다립니다.

둘

동악장터 신설

기존의 '동악광장'내에 동악장터란을 새롭게 신설합니다.

싸게 사고 팔거나 교환할 물품등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동/악/광/장

목멱골

⊠알립니다

■아침마다 간밤 숙취로 무거운 눈꺼풀을 비비며 힘겹게 눈을 뜨면 올여름 장마로 보기 흉하게 얼룩진 자췻방 벽천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개강하고부터 내리는 빗줄기가 며칠 밤낮을 그칠줄 모르지만, 눅눅한 학생회실에서 혹은 강의실에서 낯익은 얼굴들을 마주칠때마다 건네는 손바닥의 뜨거움이, 실처럼 서로를 휘감는 눈빛이 약간의 흥분으로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후덥지근한 한여름 장마에 연탄불을 넣어 퀴퀴하고 눅눅한 방안의 기운을 없애듯 다가오는 계절들에도 서로에게 그런 여름 장마의 연탄불 한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과대 학생회

■짜증난 무더위는 장대같은 빗줄기에 의해 그 기운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일만동악 학우 여러분 짜증난 여름을 잘 보내셨는지요. 개강과 더불어 등교하자마다 첫눈에 보이는 것은 외형적으로 달라진 학교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양적인 변화는 있을 지 몰라도 질적인 변화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풍요의 산실인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질적인 풍요를 채워나가는 2학기가 됐으면 합니다. 긴팔을 입을 수 있는 설레임으로 개강을 맞이합시다.

－법과대 학생회

■취업 고민에 수척해진 4학년 예비역 선배님들의 얼굴을 자주보게 됩니다.

후배들이 술사달라고 졸라댈줄알고 돈까지 준비한 92학번 예비역이 말한마디 거는 후배 없다고 쓸쓸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요즘 5.18문제에 대한 법 개정 운동등으로 몸소실천에 나서시는 교수님들도 뵙게 됩니다.

뭐하나에 젊은 시간을 불태우려해도 우리의 황한 가슴을 다 채울수 없을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에서 부터 제8대 사회과학대는 여러분들과 즐겁지만 가볍지 않은, 요란스럽지 않지만 한가지라도 똑부러지게 하는 모습보여드리겠습니다.

－사회대 학생회

■어느덧 개강한지도 벌써 일주일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어딘가가 찢어진듯 비는 계속 쏟아지고, 여기저기서 물난리가 났다고 아우성입니다. 하지만 동악의 학우들은 다른곳보다 빨리 개강한 동악에서 수업받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회포를 푸느라고 바쁘게 보낸 한주이기도 했습니다.

방중 검찰의 터무니없는 결정에 항의하며 5.18학살 원흉 전두환·노태우를 처벌하기위한 가열찬 투쟁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조국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청년의 기상으로 우뚝서 5월 영령의 한을 들고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갑시다.

－경상대 학생회

■긴긴 여름철의 낮과 밤의 폭염에서 무사히 학교로 돌아오신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학우 여러분들은 방학 알차고 유익하게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학생회 일꾼들도 여름방학 동안에 개강 후 학우들을 만나기 위해서 뜩뜩 찌는 더위속에서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1학기를 겸허히 반성하고 희망의 2학기를 우리 학우들과 함께 열심히 열어 가고자 합니다.

－생명자원과학대

■예속이 아닌
굴종이 아닌
자주적인 삶 그것을 위한 투쟁은 있어도 타협은 없다.
벗이여 너와 나 뜨거운 우정은 있어도 야합은 없다.
문부식의 詩 中에서－

비록 청명한 하늘이 아닌 장대비로 시작되는 2학기지만 새롭게 다지는 우리의 희망을, 결심을 꺾을자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겐 해야할 일이, 가야할 길이 선명해질 뿐입니다.

진정 우리의 삶이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어렵고 힘한 길일수록 좌절이아닌 패기로 2학기를 살아갑시다.

－사범대 학생회－

■애국적인 삶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민족 동국대 학우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95통일원년을 맞아서 가졌던 다짐을 남은기간 동안 더욱 풍성히 가꿔 1만동악이 단결된 모습속에서 거둬들입시다.

평소에 '팔팔'을 피우던 학우가 방중에 농활을 다녀와서 아무런 고민없이 200원을 더내고 100% 순 우리 입담배로 만든 '디스'를 피우면서 뿌듯해하는 모습, 8월16일에 5·18투쟁을 하다가 동국대에 갇혀있는 학우들을 보고 선뜻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빵을 사주시던 취직을 준비하시던 도서관 형님(한겨레 신문 사회면을 읽고 PC통신에서 열변을 토하는 후배.

다른 얘기같지만 '애국'이란 두 글자로 모아집니다. 이제는 다양한 학우들의 삶이지만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답게 통크게 단결하여 학살자를 처벌하고, 자주학원을 건설합시다.

－야간강좌 총학생회

온방골

⊠축하합니다

■올샘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다는데 얼굴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축하하면서 잘 살아보라고 야그해 주고 싶다

■25일 김모양 보쓰데이! 생일 축하해용!

－회계과 1학년일동

■선주야, 생일 축하한다 이번 학기에도 열심히 살자

－무슨소리

■상모와 미령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동뮥회 17기는 서실에 자주 올라가서 글을 쓰며 우정을 나눠봅시다.

－J·H and B·J

■울산여고·학성고 동문회, 졸업하시는 선배님들 축하합니다.

－S·A

■축하합니다. 내일(26일)은 현재 귀빠진 날입니다. 많이많이 기뻐하고 이뻐해 주세요.

－I·S

■방학동안 열심히였던 불휘여러분 무사히 전수식을 끝내심을 축하드립니다.

－모이쁜이

⊠수고하셨습니다

■방학동안 의활·농활 가신분들 수고하셨습니다.

－S·H·S

⊠알립니다

■일문후배 선배님 방학 잘 보냈어요. 특히 3학년 친구들 남은 2학기도 재밌고 즐겁게 보내자구요. 개강 파티에 마니 나오길…

－일문3년 이쁜이과대

⊠열심히 합시다

■얼굴보니 반갑네요. 이번 학기에도 열심히 뛰어 봅시다. 마음도 닦구요.

－목탁소리 짱

■으르내가 연습을 시작했어요. 모두들 열심히 하셔들 1995. 8. 23

－Freeman

■학형들 방학동안 잘 지냈는감. 이번학기도 열심히 다녀봅세

－5338

■한울인 여러분 방학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번 학기때도 전과 다름없이 열심히 해봅시다.Fighting!!

－열한기덜

■밀림을 만나면 밀림을 개척하고 광야를 만나면 광야를 개간하고 사막을 만나면 사막에 우물을 파는 열정과 모험, 패기에 찬 후배들이 되었으며…힘 냅시다.

－S·Y

■방학동안 모두 잘 지냈는지 궁금하네요. 새학기에는 더욱더 사랑하는 동국레오인이 됩시다.

－137기

⊠그리고

■태형아 숨어 있지마라 만나자 만나서 얘기하자.

－형

■새학기를 맞아 생물인의 큰 발전을

－K·S·J

■드디어 우리 95에게 제도실이 생겼다. 열심히 선을 그어야겠다.

－조경학과 1학년

■원자야!방학내 단무지 나르느라 수고했다. 번돈은 고스란히 내통장에 입금해라.

－국문94 친구

◇ '5·18 공소권 없음'은 부당하다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공소권 내세워야

시사논단

김 희 오

법정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지난 7월18일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5·18 내란 관련자들에게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1979년의 12.12 군사쿠데타와 1980년의 5.18시민학살을 통해 정권을 탈취했다 할지라도 내란이 성공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불기소 방침을 정하면서 이론적 근거로 삼은 형법 및 법철학 이론이 오용되었다는 비판은 지금까지 법조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충분히 제기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검찰의 이러한 결정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정치 사회적 관점에서 몇 가지 짚어봄으로써 정부방침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로 한다.

첫째,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는 매사에 수단을 정당화시킴으로써 사회의 무질서와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하기 쉽다. 하극상을 저지르고 수백명의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고도 정권만 잡으면 사후에 면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부정시험을 치르고라도 합격해야겠다는 수험생과, 반칙을 해서라도 시합을 이겨야겠다는 선수, 그리고 관권이나 금권을 동원해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 등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 들여지겠는가. 일등병이 병장에게 대들면 군법에 회부되어 영장에 가지만 소장이 대장을 협박하면 훈장받을 수 있는 군대와, 한두 사람을 죽이면 살인행위로 형무소에 가지만 수 백명을 죽이면 청와대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가 혼재된 나라에 올바른 질서가 세워질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냉소가 만연된 우리 사회에서, 수 백억 혹은 수 천억원을 빼앗은 의혹을 받은 사람들은 통치행위라는 구실로 수사마저도 하지 못하는 검찰이 돈 몇 푼 훔치거나 빼앗은 용의자들을 무슨 낯으로 절도나 강도죄로 구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둘째,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국민화합과 사회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이나, 현재 한국의 정치와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의 하나는 지역갈등의 해소이다. 요즈음, 특히 6·27 지방자치체 선거이후, 특정지역의 특정지도자에게 지역갈등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의 한이 풀리지 않고 명예가 회복되지 않는 한, 무슨 선거가 치루어지더라도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출마하더라도 그들이 가해자의 편에게 표를 던질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위정자들은 이제와서 옛일을 들추어내 봐야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라며 국민대화합을 위하여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자고 호소한다. 그러나 가해자는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고 심판은 판정할 처지가 아니라고 발뺌하는 마당에 피해자가 분노와 한을 삭일 수 있을까? 사실규명을 통해 잘못이 응징되고 변명이 아닌 참회가 앞설 때 보복이 아닌 관용이 뒤따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과거는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진정한 화합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며, 나아가 민족과 나라의 정기가 바로 세워질 수도 없을 것이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거사에 매달려 국론을 분열하거나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들린다. 그러나 감추어진 사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고, 왜곡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 잡히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실현시키는 일을 미루면 미룰 수록 '국론분열'과 '국력낭비'는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군사쿠데타와 시민학살을 통한 정권탈취를 법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착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12.12사태'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그러한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길이요, 소위 '광주사태' 혹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총칼에 의한 정권획득이 엄청난 범죄라는 것을 확인 시키는 일이다. 5·18 내란의 불기소는 불안한 정세를 악용하여 '사회혼란'을 핑계로 물리적 힘에 의한 정권찬탈을 꿈꾸는 세력들의 재등장을 부추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따라서 내란의 전모를 소상하게 밝히고 책임자를 응징하는 것은 정치권력의 변동이 탈법적으로 물리적 힘에 의하지 않고 법의 테두리안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치를 마련하는 초석이요,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 정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훗날의 역사에 맡기자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화합과 사회발전을 해치며 역사의 왜곡을 방조하고 정치발전과 민주화를 가로 막는 행위와 다름없다. '문민독재'라는 세평을 불식시키고 민족정기를 세워 진정한 국민대화합을 이루며 정권안정 및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지금의 검찰은 5·18내란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드러내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 국가보안법 철폐돼야

기본적 소유관계·저계급 이해관계 충돌이뤄
전국민의 철폐요구 줄기차게 분출

지난 7월20일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강당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등 4개 재야단체 공동주최로 열린 '국가보안법 피해자 대회'에서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등 국가보안법피해자 5백여명은 국가보안법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정식으로 제소하기로 했다.

이미 한국은 지난 91년과 92년 유엔인권위원회 1503 절차에 의한 제소를 당해 인권침해국으로 지목된 바 있어 이번 제소결정으로 '국가보안법'은 또다시 국제사회의 도마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동안 김영삼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단행된 일단의 사정개혁으로 정치권의 구태가 시정되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의 대표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개폐 여부에 촛점이 모아졌었다. 그러나 이번 6.27지방선거를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집권 하반기에 들어선 현 정부의 정국운영은 대통령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듯하다.

지난 몇 년간 '국가보안법'에 대한 법원의 '위헌 시관 제청'등 사법부 일각에서의 문제제기가 있기는 했으나, 이미 '국가보안법 폐지'는 통일정책이 부재한 현 정부에게서는 더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

국가보안법의 본질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 강화시키기 위하여 보안법 체계는 존재하였다. 일반적으로 보안법 체계는 한 사회의 기본적 소유관계와 이를 둘러싼 제계급의 이해관계에 따른 첨예한 계급투쟁에서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다. 헌법상의 '국가안전보장'내지 '질서유지'라는 개념에서 드러나듯이 보안법체계는 기존의 국가권력과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복무한다. 따라서 보안법은 한 사회에 있어서 그 형식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헌법보다 상위인 최고법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그 제정(1948년, 12.1)이후 수 차례의 개정과 통폐합을 거치면서 한국사회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와 민족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진영 일체를 가차없이 탄압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뇌리속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좌익 콤플렉스'가 강제 주입되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할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창조적 원동력을 짓누르는 해악을 끼쳐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개정론, 대체입법론, 폐지론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와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정론과 대체입법론은 존치론의 변종에 다름아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형법이나 특별형법들의 규정들로도 얼마든지 기존의 국가보안법으로 수호하려는 자유민주주의는 지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은 현행 헌법이 보장한다고 규정한 제반 기본권마저도 유린함으로써 자기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제반가치들이 국가보안법의 존재로 질식당하고, 그로 인하여 각 계층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조차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전체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함으로써만 꽃 필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궤변이요, 억지일 뿐이다.

국가보안법 철폐는 전 국민의 문제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시급하게 요청되고 또한 다수 국민들의 폐지요구가 줄기차게 분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고집하는 세력이 우리사회의 정치, 경제부문에서 아직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아직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가장 비자유주의적이고도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다수 국민들의 정당한 불평과 요구를 압살하고 사회개혁의 기회를 차단하고 현 체제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김 혜 정

(나라정책 연구회 연구원)

사설

학교발전안 구체적 실천으로

2학기 개강을 맞아 다시 캠퍼스가 활기를 띠는 듯하다.

도서관에서 전공서적에 심취해 무더운 여름을 잊기도 하고 아르바이트, 혹은 여행을 떠나는 등 나름대로 알찬방학을 보냈을 것이다. 만족한 생활을 했든 아쉬움이 남든지간에 이제 차분히 정리를 하고 새롭게 2학기를 시작할 때이다.

올해는 학교발전에 대한 열의가 어느때보다 높은것이 사실이다. 방중 진행했던 창틀보수, 조경공사로인해 캠퍼스분위가 한결 산뜻해 지고 있다. 여름내 힘들게 진행했던 공사인것은 인정되나 개강전에 끝냈더라면 아쉬움과 함께 그렇게 애쓴 결과가 실질적으로 면학분위기조성에 일조 하길 바라는 마음간절하다. 현재 명진관과 학림관내부에 갈라진 벽을 타고 비가 새서 바닥이 물로 흥건해, '삼풍'의 두려움을 연상케 하고 있다. 보이는 곳만의 치장이 아니라 활동공간의 쾌적함도 면학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고있다. 단순히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대비하는 전시적 효과뿐아니라 실질적인 대응을 바라는 여론이 있음도 귀기울일 여지가 있다.

외적발전 뿐아니라 지난학기 내적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이 몇가지 발표됐던 것을 기억한다. 다전공·복합학문연구가 가능하다는 최소전공인정학점제 도입, 등록금 차등제와 예고제, 졸업학점하향, 전과제도확대를 골자로한 교육제도 개정발표등이 그것이다. 학교당국 책임자가 올 10월에 어떤 정책 발표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지만 연구검토단계를 지나 학내 의견을 수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때이다.

한편 올해 예정되었던 대학종합평가인정제가 내년으로 연기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등록금 인상근거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던 평가 준비가 연기된 것의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준비미흡으로 연기되는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 하겠다.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계획성있는 준비로 평가를 위한 평가준비가 아닌 학교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것이다.

다음으로 제3캠퍼스와 불교종합병원 건립도 언제까지나 의욕적인 청사진으로 제시될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진행상황이 가시화 되어야 한다. 제3캠퍼스는 여전히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불교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 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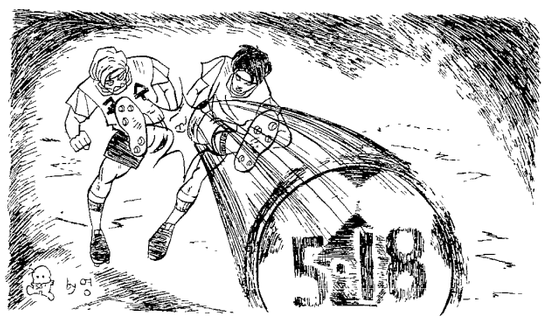
학과신설문제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인 교수연구실, 교육과정 학회실조차 마련안된 상태에서 재원확보 목적을 위한 무조건적인 증과·증원은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간에 학교발전안이 조금씩 제기가 되었다면 이제는 구체적 실천 단계로 접어들 때가 아닌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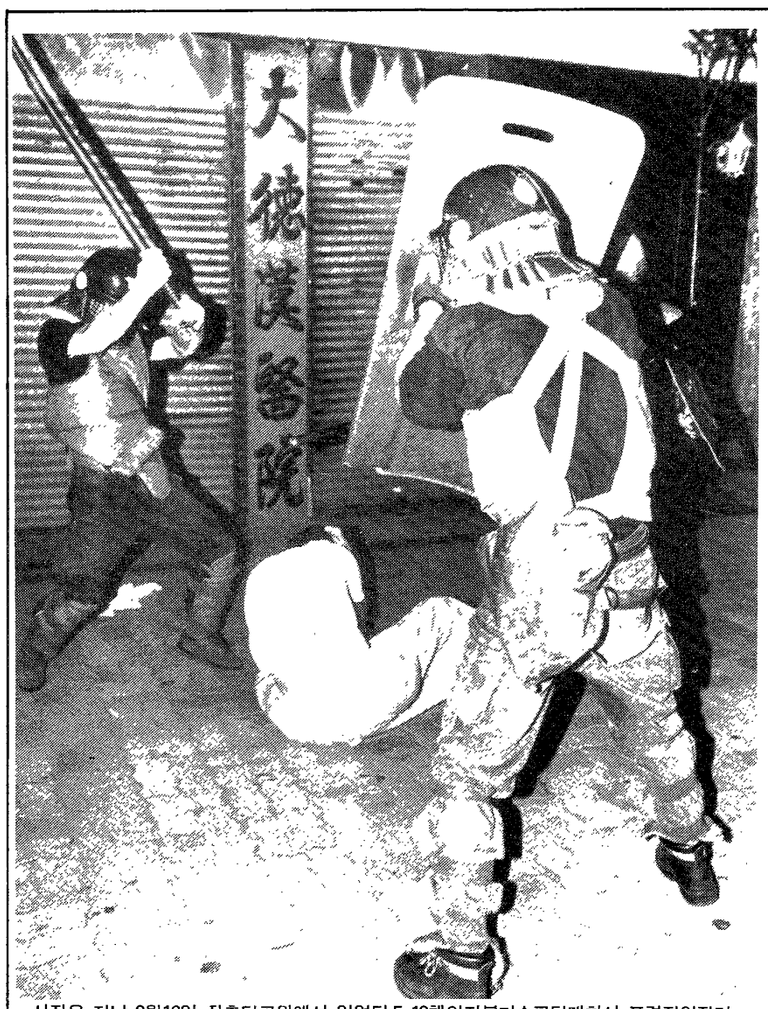
전동국인의 참여와 협의, 토론등을 통한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친 구체적인 발전방안의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

동국만평

이 영 일



□ 5·18공동기획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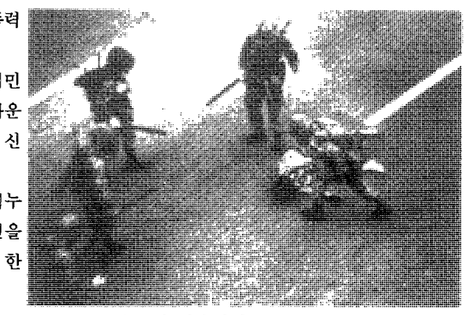


사진은 지난 8월16일 상충단공원에서 있었던 5·18책임자불기소규탄대회시 폭력진압장면

5·18, 있는것과 없는것.

80년 5월에는 '폭력'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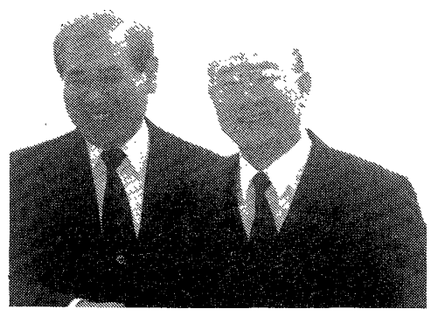
그때 그곳엔 12·12반란군부의 과잉진압과 살인폭력이 있었습니다.
백주대낮에 길한가운데서 옷을 벗은채 매맞는 시민들이 있었고 벼가 한창 자라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들녘구석에서 총에 맞아 죽어가는 어린 아이의 신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 동생, 누이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푸른 제복이 있었고 여기저기 잘려나간 시신을 부여잡고 치를 떠는 광주의 흐느낌이 있었으며 한반도의 통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 8월, 여기 다시 80년 5월의 폭력을 되살아오게 하는 또다른 폭력이 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외치는 군중에게 최후탄을 쏘는 정권이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조치에 격노한 시민에게 진압봉을 휘두르는 우리의 '자랑스런 대한의 건아(?)'들이 있습니다.
'문민'시대에 재연되는 5·18의 고통이기에 더욱 처참한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5·18에 '공소시효'란 없습니다. 아니 없어야 합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검찰의 결정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을 포기한 것에 다름아닙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검찰의 결정은 '위헌'이며 정부는 5·18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에 관한 입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한반도의 치욕을 없애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5·18에 공소시효는 '없다'!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서울지역(동부지부, 서부지부, 남부지부, 북부지부)/경인기련/강원지부/충남지부/충북지부/전북지부/광주전남지부/대경지부/경남지부/부울지부

취재 낙수

신명나는 금지곡?

○…신명나는 민중음악의 명수인 꽃다지는 미풍양속을 파괴하는 미개인(?)

꽃다지는 공식음반중 대중에게 널리알려진 '한걸음씩'이란 노래가 미풍양속을 해치는 노래라는 이유로 음반에서 제외받도록 요구되었다는데.

참가한 모든 관중들은 꽃다지와 함께 신나게 한걸음씩을 열창

흥겨워노래하던 한 아저씨는 "이런 노래가 미풍양속을 해친다면서 요즘 노래들은 우찌잘도 불려지노"하면서 한마디 던져.

유행 창출

○…공연장의 관람객도 새로운 유행을 창출한다고(?)

구경도중 배고픔에 지친 한 단체학생들은 단체로 뻥튀기과자를 사와 모두 나눠가진뒤 단체로 손높이들어 흔들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

옆에있던 다른단체들도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았는데

흔들다 지치면 한번씩 먹을 수 있어 좋다고 밝힌 한 학생 "라이터 노우, 형광 팔찌 노우, 뻥튀기과자 예스"

태춘오빠 멋쟁이

○…보라매 공원에서 열린 민족공동행사 전야제는 참가한 시민들과 학생들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다.

특히 토요일가요제전이 열리고 정태춘가수의 등장은 분위기를 최고로 술렁이게 만들었는데.

털털한 목소리, 소박한 외모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그가 등장하자 모든 사람이 열렬히 환영하였다.

환호 속에 입장한 정태춘은 "정부가 광화문에 출현해 달라는 초청을 마다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거기선 2백50만원을 준댔는데 여기선 2백50원이나 받을 수 있을런지"라고 말해 대회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아저씨 비켜!

○…민족공동행사 전야제로 보라매 공원의 열기는 한밤중에도 가실 줄 모르고.

특히 전야제 환영행사로 뛰어난 노래 실력을 가진 꽃다지의 출현은 학생들의 관심을 최고로 끌어올렸는데.

하지만 기자들의 앞다투는 사진촬영으로 무대는 전혀 보이지 않아 학생들은 가수들이 한명도 안보인다고 아우성.

이 아우성을 듣고도 계속해서 사진을 찍는 기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이 행사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중얼.

교수 기고

광복 50주년 맞아, '통일의 노래'를…

원 유 한
〈사범대 역사교육과 교수〉

백록담 맑은 물 세월 속에 잦아 들고
검바위 억센 기상 찬비 맞아 여위는데
북녘 찾는 나그네 눈길 구름속을 헤매누나
— 분단 현실 —

천지물 비구름 되어 만경들 내려앉고
마라도에 돋은해가 두만강 물 데우는데
한피 나눈 남남 북녀 길 험하다 주저하랴
— 통일 의지 —

사랑이 총 칼 녹여 밭가는 쟁기 되고
돈과 이념 무서워도 사랑 앞에 거품되니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잘린 국토 이어보세
— 통일 방법 —

백두산 용암 흘러 육대주에 등불 되고
한라산 바람 불어 오대양에 봄이 되니
배달겨레 설악에 올라 세계평화 노래하자
— 통일 완수 —

동악로

슬리퍼의 사연

'학림관에 올때는 슬리퍼를 준비하세요'

요즘 사범대 학생들 사이에 통용되는 말이다. 사범대 학생회(회장=조현종·국교4)실에 들어서면 낯선 물건이 눈에 띈다. 학생회실 구석구석에 자리잡고 있는, 물이 가득 담긴 플라스틱통들, 그 위로 물을 안내하고 있는 테이프로 고정된 비닐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지난 6월말부터 사범대 학생회실 곳곳에서 빗물이 갈라진 벽을 타고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집중 폭우가 내릴 때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져 빗물이 비닐을 타고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내려 30분마다 물을 비워야 했다.

바닥 역시 예외없이 항상 물이 홍건히 고여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이로인해 사범대 학생회는 집기와 비품에 곰팡이가 쓰는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호소한다.

사범대 한 학생은 "방중에 조경공사를 실시했는데, 그런 보여주기식 공사보다 이런 공사를 먼저 해야하지 않느냐"며 볼멘 소리를 했다.

한편 장대비가 쏟아진 지난 23일 명진관 양측계단에서도 빗물이 흘러내려 학생들은 물론 교내 용역근로자들도 불편을 겪게했다.

이날 명진관사태는 옥상의 물홈통이 농구공에 막혀 물이 빠지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으나 농구공을 제거한지 이틀이 지난 25일에도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농구공탓으로 돌리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다.

관재과의 한 관계자는 "학림관의 경우도 몰홈통에 빈캔 등의 쓰레기가 메우고 있기 때문이지 배수관이나 건물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범대 한 학생은 "건물벽에 방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비만오면 땅속으로 스며든 물이 벽을 통해 흘러내린다"고 하소연한다.

정확한 원인은 조사 후에 밝혀지겠지만 여름철 장마준비에 흑시 소홀하지 않았는지….

〈박대용 기자〉

◇8·15 민족 공동 행사 평가

농민·교사·종교인등 여러층 참여 두드러져
전경배치·학생폭행…문민정부 통일의지 0%

"평화로 한마음, 통일로 한걸음"이란 상징글귀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보라매공원과 서울대에서 치뤄진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이하 민공행사)에서 시민과 학생이 하나되어 통일을 염원했음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한다.

지난 90년부터 95년까지 치뤄진 범민족대회가 가졌던 폭을 넘어서 대중적행사로 전개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이번 민공행사는 참가단체가 과거 40여개에서 1백40여개단체로 3배나 넘게 늘어났다.

이번 행사는 과거와는 달라진 대중참여 확대라는 것에서, 주제가 단순한 투쟁이 아닌 모두가 포괄할 수 있는 통일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7시에 개최된 남북통일음악회의 경우 민중음악의 선두주자인 꽃다지, 천지인, 노랫마을, 천지인과 정인숙, 김요한, 김진수 선생등 유명 음악가등이 참석해 통일 음악으로 대중들을 이끌어 이날 행사의 참석한 인원은 학생들뿐 아니라 시민까지 포괄해 약 2만명이 관람했다.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의 김성희 홍보국장은 "시민이 6천명 정도가 참석해 대중참여에 성공했다고 본다"고 말하며 "자체적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족이라는 상황으로 인해 전체적 준비가 부드럽게 이어지지 못했고 계획되었던 프로그램이 1백%로 활용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다음날(14일) 오후 7시에 치뤄진 8·15 50주년 경축 전야제에 참석한 정태춘 가수는 "지금 광화문앞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 참석해서 노래한곡을 부르면 2백50만원을 준다고 했으나 나는 3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이자리에서 노래부르는 것을 선택했다"고 말해 듣는 이들에게 화려한 무대보다 의미있는 자리의 중요함을 느끼게 했다.

또한, 전야제 시작과 함께 환영식을 가진 삼천리 대행진단의 경우 한라단과 백두단등으로 나누어 통일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등 남다른 열정을 보여 통일의 중요성과 현재 통일운동을 일반시민에게 알리는데 크게 공헌했다.

한편, 3시간에 걸쳐 치뤄진 전야제 도중 서울대로 옮겨가는 학생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한때, 분위기가 산만해지기도 했다.

이번 민공행사는 일본군 위안부 사죄배상촉구를 위한 여성한마당을 가졌는가하면 노동자, 교사, 농민, 종교인등이 각기 부분별 행사를 치뤄 단순한 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닌 여러계층의 현실적 의견도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민공행사 마지막날 서울대에서 치뤄진 민족공동 대토론회의 경우 진정한 토론회라기 보다, 시간에 쫓기어 다급히 치뤄졌으며, 참가자들도 소수로 국한되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보라매공원처럼 시민의 참여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보라매공원과 서울대에서 치뤄진 민공행사는 과거 범민족대회보다 한층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으나, 이에 비해 문민정부는 전경을 1만명이 넘는 전경을 배치하고 학생들의 가두행진에 폭행을 가하는등 긴장의 연속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알권리의 침해라는 여론이 높았다.

이번행사도중 학생측은 정민주(인천대 건축과 3)양과 이혜정(카톨릭대 성심교정의예과 2)양을 범청학련 중앙위원회 대표로 북한에 보내는 한편, 연방제통일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합의문에 합의하였다.

범민족대회와 분리되어 치뤄진 이번 8·15민족공동행사는 조금이나마 통일운동이 방향을 바꿨으며 행사도중 나타난 여러문제점을 앞으로 점차 개선되어져야겠다.

'통일은 됐어'라고 외치던 문익환선생의 말처럼 오늘의 통일운동의 발자취들이 진정한 통일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민족 대토론를 보고

통일방안— 전민족적 과제임을 경각시켜
국보법 철폐·평화협정 체결 우선돼야

해방 50주년 조국의 평화실현과 자주통일을 위한 민족대 토론회가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의 주체로 지난 15일 오전 9시30분 서울대학교에서 열렸다.

김상근(민족공동행사 상임공동대표)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남·북·해외가 공동 개최하는 행사의 일환이다.

제1주제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당위성'에 대해 목사 정기열씨의 발제는 "우리는 통일의 현실론, 당위론은 정세변화의 객관적 요구에 맞게 그 때마다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고 새로운 의미를 제시해야 할 능동적인 임무수행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3주제 '통일의 원칙과 방안'에 대해 박순경(민족공동해사 상임공동대표)씨는 "통일을 위한 접근방법은 현재 국보법 철폐, 장기수 송환,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 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내세웠으며, 정치군사적 문제해결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에 의한 연방제 이외는 없다"며 통일과정으로 "정치군사협상과 교류협력 후 1단계 연합·연방제 2단계 1국가 1체제"를 주장했다.

주제토론회가 끝난 후 '조국의 평화실현과 자주통일을 위하여'라는 주제 아래 기조연설문 낭독후 통일광장 지역·부문별 발언으로 이어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숙임씨는 "일본군 위안부의 진상규명과 일본의 사죄배상을 받아내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기위해 유엔 상임이사국 가입반대 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양재혁교수는 "창조적 통일교육으로 통일의 당위성과 역사성을 대중화시키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주장했다.

이어 노회찬(진보정당 추진위원회)씨는 "남북통일의 방안과 형식보다는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전제를 중시해야 하며, 평화 민주주의 평등 번영을 모토로 하는 대중적 통일운동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열변했다.

특히 겨레모임동맹 오정윤씨는 분단극복을 위한 전제로 다섯 가지를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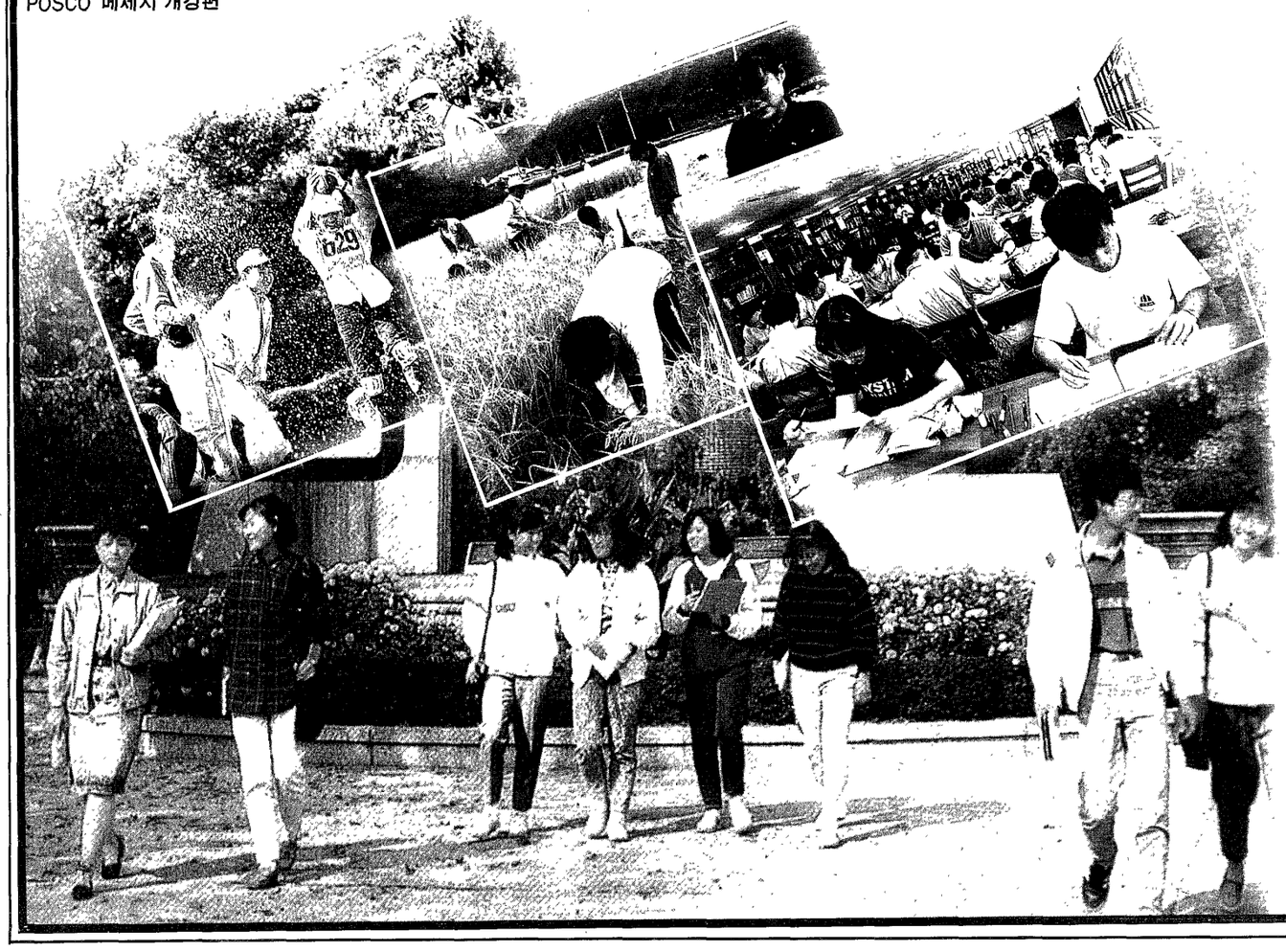
첫째, 이데올로기 통일은 안된다는 것 둘째, 자주성의 원칙을 버려서는 안된다는 것 세째, 남·북 민주화 완성단계에서 통일 이뤄야 한다는 것 네째, 무력통일은 안된다는 것 다섯째, 정치적 통일전 경제적·문화적 통일 이뤄야 한다는 것 등이다.

토론회는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남·북·해외준비위원회의 공동이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채택한 후 막을 내렸다.

이번 민족대토론회는 남·북·해외의 한마당으로 더욱 열정적으로 진행됐어야 했지만 북·해외의 불참으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3시간이란 시간이 무색해지도록 시간에 쫓기는 토론장의 모습에 큰 아쉬움을 남겼다.

POSCO 메세지 개강편



늘 열려 있는 캠퍼스

반갑게 웃는 친구들의 하얀치아가
유난히 반짝이는 9월의 캠퍼스
오랫만에 나누는 정담과 개강의 설레임

배낭여행, 농촌봉사활동, 그리고 도서관에서 —
새로운 경험과 산 지식으로 한층 성숙해진
여러분을 위해
캠퍼스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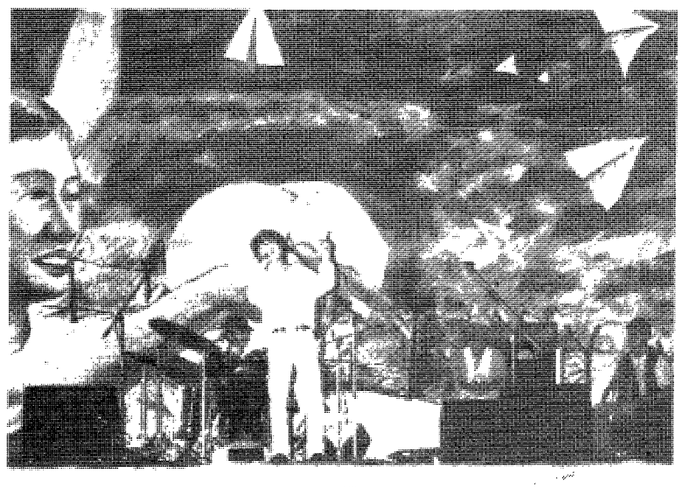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학기에는
여러분을 향해 열린 캠퍼스 안을
진리와 탐구의 열기로 가득채울때
상아탑의 진정한 주인으로
미래의 주역으로
우뚝설것 입니다.

국민의 기업, 우리의 기업—
포항제철

◇통일운동의 변화와 앞으로의 방향

통일운동의 대중화 기틀 보여줘

조직적 규율·기층 저버리는 자세 지양해야



◇8·15 민족공동 행사는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모색한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88년 이래로 8·15를 경험해 보았고, 매년 대회를 치뤄왔지만 올해 처럼 곡절이 많은 대회를 치루기는 이번이 처음인것 같다. 물론 통일 운동이라는 것이 어제 틀리고 오늘 틀리는 일이라서 언제나 변화가 무쌍한 것이지만 올해는 유난히 그 변화를 가늠하기가 어려웠던 한 해였다.

올해의 이 경험속에 하나 분명한 것이 떠오르고있다. 통일이 더이상 당위나 이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변화무쌍한 현실이며 능력의 문제이다. 북—미 관계가 변화하고 동북아 정세가 급속히 변화되어 남과북은 냉각적 대결을 더이상 지속할 수 없다. 국민들속에서 통일에 대한 열망이 마음속의 염원에서 현실의 염원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통일이 남한에서 현실의 통일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명분만이 아니라 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힘을 갖기 위해서 통일 운동의 대중화가 필요하다. 대중화된다면 대중의 창의로 모진 탄압으로 굳어진 틈을 풀 수 있으며, 유연한 전술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신망을 갖고 내외의 반통일 세력을 제압해 나갈 수 있다. 민족 공동행사는 그렇게 마련되었다.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족공동행사 추진 주체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였다.

민간 통일 운동이 이러한 민족공동행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김영삼 정권은 3차례에 걸친 북한 주민 접촉신청마저 거부하여 북경에서 열린 남북해의의 3자 회담을 계속적으로 방해하였다. 이보다 앞서 5월16일에는 8·15의 판문점행사 불허, 대규모 옥의 정치집회불허를 발표하며 민간 통일 운동이 마련하는 통일 운동에 대해 방해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였다.

그러한 정부의 태도는 8·15민족공동행사 준바 주체가 지난 '타협할 땐 타협하고 밀어붙칠땐 밀어붙인다'는 의지를 꺾지 못하였다.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는 남측당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북경회담을 진행하였으며, 남과북 그리고 해외의 3자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또한 남측당국이 옥의행사 불허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8·15경축행사를 광화문에서 하는 마당에 민간통일 운동의 경축과 통일행사를 불허하는 것은 명분이 없음을 끈질기게 설득하였다. 결국 광화문 행사 성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당국은 민간 통일 운동의 협박반, 설득반에 굴복하여 보라매와 서울대를 행사장으로 허용하게 되었다.

8월14일 보라매는 4만5천을 상회하는 인원이 운집하였다. 더위를 피해 어린 아들 딸을 안고 민족공동행사 전야제를 보러온 아져씨, 아주머니들이 10시가 넘어서도 보라매로 몰려 들었다. 울산의 노동자 1백여명은 14일 하루 월차휴가를 내고 서울로 올라왔다. 부산과 광주의 7백여 노동자들은 15일 새벽 1시가 넘어서 대회장에 도착하였다. 농민들은 논산에서 양평에서 경상도에서 트럭을 앞세우고 달려왔다. 고등학생들은 스스로 2백여명의 대오를 형성해 참석했다. 이렇듯 8·15민족공동행사에 예전에는 볼 수 없던 대중화의 기틀을 보여주었다. 이전과 같이 학생들이 대부분인 통일 행사에 노동자와 농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통일 행사로 변화해 가는 기초가 마련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범민련이 중심이 되어 추진된 95범민족대회남측추진본부와의 깊은 골을 해소하지 못한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그 결과 전야제의 분위기가 한껏 올라가는 시점에 일부학생들이 분위기를 흐리며 보라매를 빠져나와 참여한 시민들을 실망시켰다. 그리고 범민족대회남측추진본부가 서울대 대회장을 장악(?)해 범민족대회 전야제를 강행함으로써 통일 운동의 분열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 또한 하루밤을 꼬박세워 행사를 진행한다거나 8월 뙤약볕에 3시간 이상 집회를 강행한것, 미숙한 문화행사등 주최측의 준비부족도 드러냈다. 이러한 분열과 미숙성은 참여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을 품게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우리는 이번 8·15행사를 치뤄내면서 통일 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가야 하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 아직도 남아있는 '이념의 과잉'을 불식하고 국민에게 좀더 다가가는 통일운동이 되어야 한다. 말로는 원칙을 이야기하며 가장 기초적인 조직적 규율과 기층을 저버리는 자세를 척결해야 한다. 종파주의와 좌익맹목주의 암약을 묵인한다면 통일운동의 단결도 보장할 수 없으며 반통세력을 힘있게 제압할 수도 없다.

남과 북이 통일을 이뤄내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발딛고 있는 남한을 벗어나 통일을 추구할 수는 없다. 이미 통일은 현실이다. 현실에 발딛고 서는 자세와 현실에 적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 속에서 현실을 개조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더디가도 사람 생각하며 간다'는 한 문구처럼 이제 통일 운동은 더디가더라도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통일운동이 되지 않으면 현실 개조력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통일은 이제 우리앞에 닥친 정치현실이며 모든 정치현실이 그랬듯이 통일은 국민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철폐하는 것도 국민이며 통일방안을 결정하는 것도 국민이 될것이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민간통일 운동은 국민과 함께 국민들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데올로기적 관심을 개조해 나가며 전개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반통일 반민족적인 외세와 일부 매판세력에 의해 민족의 통일은 왜곡되고 말 것이다.

김 성 회
〈전국연합 교육국 부국장〉

행사장에서 만난 사람들

통일의 열기에 젖은 대학생

8·15민족공동행사의 전야제가 진행되고 있는 13일오후 보라매공원, 행사장내 통일의 열기에 흠뻑젖어있는 조현철(서울대·동물자원과학과2)군을 만났다.

—행사에 참가하게된 계기는.

=통일의 열기를 몸소느끼고자 한겨례야학당 사람들과 함께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좋았던 점이라면.

=통일운동이라 하면 자칫 시민들과는 동떨어져 진행될 수 있는데 행사가 공원에서 열려 시민들과 같이할 수 있어 좋았다.

—통일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대표자들만의 통일이론 운운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시민 한사람 한사람, 단체구성원 모두가 통일에 대한 뜨거운 염원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 되지 않겠는가!

—행사에 참가하면서 느낀점은.

=글쎄…그저 좋았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것이 안타깝다. 의도자체가 좋았고 이런 행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다.

—광복50주년을 맞아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야학당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야학당에도 그저 호기심으로 오는 이들은 잠시 머물뿐이지 오래 견디지 못한다. 통일에 대한 관심역시 이런 행사가 있을때만 잠시 달아 올랐다.마는것은 절대 금물이라 생각한다.

무언가를 적고 있는 노인

지난 14일 열렸던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통일가요제전'행사장 한쪽 귀퉁이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한 노인을 만나보았다.

—무엇을 적고 있는지.

=연설자가 하는 말을 적고 있다. 행사동안에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놓치면 안된다. 그냥 행사장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학생들을 보면 안타깝다.

—참여동기는.

=이런 행사가 있었는지도 몰랐다. 작년 통일관련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세종문화회관에서 만난 신창균씨로부터 어제 연락받고 오늘 부랴부랴 올라왔다.

—첫 느낌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모인 것을 보고 눈물이 났다.

—주위 노인분들은 이런 것을 어떻게 보는지.

=답답하다. 전혀 이해를 못 한다. 그저 답답할뿐이다.

—통일에 관한 생각은.

=가만있으면 안된다. 노력했야 한다. 종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북한 주민을 사랑해야 한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바다를 이루듯이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1천만이 모이면 대통령도 탄생할 수 있다.

무리와 떨어져 구경하는 직장인

민족공동경축행사 도중 사람들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홀로 구경하는 한 남자를 만났다. 부산대를 졸업한 그는 지금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다고 한다. 이름은 남진희로 83학번이다.

—참여동기는

=이번 민족공동행사에 국민대다수가 참여하면서 통일에 대해 공감할 수 있고 또 많은 생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요. 분단이 된지 50년이 되었지만 통일의 열기도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이런 작은 참여가 통일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행사의 분위기는 어떤지.

=잘 이해가 가질 않아요. 직장인이어서 행사의 내막을 잘 몰라서인지 민족공동행사와 범민족대회의 뒤범벅으로 분위기는 어수선한 것 같아요.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있다면.

=통일그림엽서 전시회로 국민학생들이 그린 그림으로 엽서를 만든 것인데 그림의 내용에 놀랐습니다. 옛날의 학생들과는 달리 지금은 학생들이 북한에 적대심을 갖지않고 북한의 생활상에 많은 호기심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부분 모두가 멀리에서 와 고생 많이 하신 줄 압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통일의지를 자기자신에게 굳건히 심어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나무아래의 노동자

8·15민족공동경축행사가 거의 다 끝나고 흩어질 무렵 나무 아래에 한 여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김희자(23)양으로 인쇄노조에 근무하고 있다.

—이 행사에 참여한 동기는.

=통일대회니까요. 여기에 관심도 많고 가능하며 이런 행사에 많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행사중 인상에 남는 것이 있다면.

=인상에 남는 것은 거의 없어요. 작년에도 참가했지만 그대로 답습했다는 기분이 들어요.

—행사분위기는 어떠한지.

=단결이 너무 안되서 기분이 안좋아요. 대회는 2개로 나눠지고 그래서인지 구호도 흥미가 없고 분위기는 더욱 그래요.

—이 대회서 실망한 점이 있다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내부마저 단결이 잘 안되어 실망입니다. 지도부에서 올바른 지침도 안나오고 단결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지도부마저 대동단결을 못하면서 통일한마당이 잘 치뤄지길 바라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런 큰 대화에서조차 분열이 있으니 조합일하면서 걱정이에요. 조합원들이 이걸 보고 단결을 잘 할지…. 지도부가 각성을 하고 마음만 맞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음이 즐겁고 신뢰가 있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가족과 함께 참석한 회사원

8·15 민족공동행사에 가족들과 함께 참석한 30대 회사원을 만나보았다.

—민족공동행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나 여러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것 같아 보인다.

—통일관은?

=통일은 빨리되어야 한다는 것에, 학생들의 주장에 공감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본 적은 아직 없다.

—학생들의 가두시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생들이 꼭 필요하다면 입장표명은 생각한다. 그러나 충동적 행동보다는 자제가 필요할때 자제를 하는것도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특별취재단

양수정 사회부장 김희동 기자
박대용 기자 한상용 기자
송선영 기자 박미희 기자
이현주 기자 김기영 기자

50
1945-1995
무한·책임·주의
태평양 진공장(대전 수원 김천·안산)
「95년 환경관리모범업소」로 선정

20½

태평양의 나이는 20½

태평양이 걸어온 50년 세월—
그러나 태평양사람들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나아가는 진취적 도전의식과
미래 첨단사회로 펼쳐가는 실험적 실천의지가
그들의 가슴 속에 언제나 뜨겁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미와 건강을 창조하는 기업,
휴먼르네상스를 창조하는 기업으로서
생명공학을 토대로 한 정밀화학, 의학, 식품사업과
정보통신, 유통, 영상, 문화레저, 실버산업에 이르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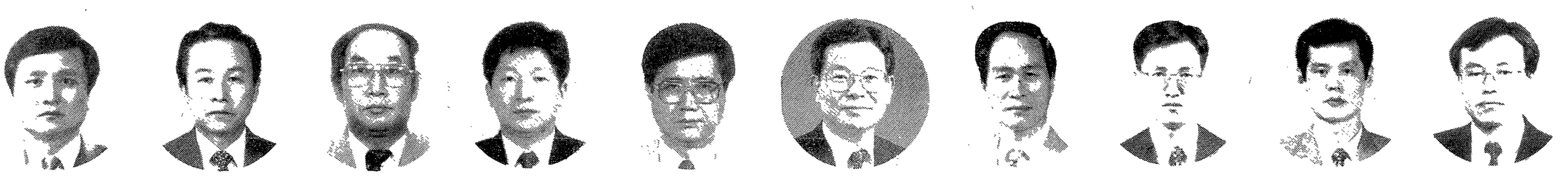
21세기 새로운 역사창조를 위한 태평양 사람들의
혈기왕성한 기업활동이 있기에 오늘도 젊은 태평양,
그 나이는 언제나 20½ 입니다.

태평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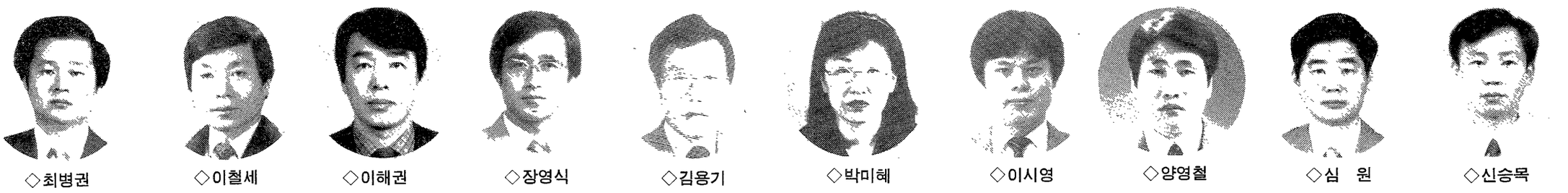
1994학년도 후 기

박사·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박찬두 ◇고명수 ◇이길재 ◇최영주 ◇황규선 ◇강상원 ◇이운형 ◇이영식 ◇권오윤 ◇김성준



◇조영진 ◇김종택 ◇전동원 ◇손진혁 ◇이수열 ◇손완수 ◇이만득 ◇윤창훈 ◇기중서 ◇박문호



◇최병권 ◇이철세 ◇이해권 ◇장영식 ◇김용기 ◇박미혜 ◇이시영 ◇양영철 ◇심 원 ◇신승목

◇서성연 ◇조길석 ◇권동진 ◇정희정 ◇김정숙 ◇허정욱 ◇홍율희 ◇탁의수 ◇박성범

〈이상 40명〉

박사학위

◇박찬두(문학박사) = 김동리 소설의 시간의식 연구 ▲39년생 ▲본교 국어국문학과 졸 ▲95~현재 대전대강사

◇고명수(문학박사) = 한국모더니즘의 세계인식 연구- 1930년대를 중심으로 ▲58년생 ▲본교 국어교육과 졸 ▲93~현재 본교 강사

◇차광순(문학박사) = 영어과 교육과정에 부합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향상

◇최영주(문학박사) = Shakespeare인물의 재현성과 연희성- Richard Ⅲ, As You Like It Hamlet을 중심으로 ▲60년생 ▲본교 영어영문학과 졸

◇황규선(철학박사) = 순자 예사상에 관한 연구 ▲37년생 ▲서울대 치과대 졸

◇강상원(철학박사) = 일미관행에 있어서 증도관에 관한 연구 - 원효의 금강상매경론을 중심으로 ▲38년생 ▲한국외대 졸 ▲93~본교 강사

◇이운형(철학박사) = '거짓말쟁이 역설'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 ▲55년생 ▲본교 철학과 졸 ▲82~현재 경기대 교수

◇이영식(교육학박사) = 도덕적 주체성의 형성을 위한 내면성과 실천성의 문제 - KANT를 중심으로 ▲45년생 ▲한국외대 독일어과 졸 ▲83~현재 전북대 교수

◇권오윤(정치학박사) = 북한 동원체제의 변화에 과한 연구 ▲62년생 ▲본교 정치외교학과 졸 ▲91~현재 본교 강사

◇김성준(행정학박사) = 지역개발 행정의 민·관협력체제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 사례를 통한 행정관리 전략 ▲56년생 ▲제주대 행정학과 졸 ▲91~현 제주대 교수

◇조영진(행정학박사) = 한국통일에 대비한 토지정책에 관한 연구 ▲55년생 ▲국제대 경영학과 졸 ▲82~현재 (주)한국물산 부장

◇김종택(경영학박사) = 수출기업의 경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36년생 ▲중앙대 상학과 졸 ▲94~현재 동양기공(주) 상임감사

◇전동원(경영학 박사) = 소프트웨어 품질의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 품질정보전달모델에 의한 품질지수 설정과 관련하여 ▲50년생 ▲성대 경제학과 졸 ▲89~현재 유한전문대 교수

◇손진혁(경영학박사) = 환경변화와 마케팅전략의 적합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60년생 ▲방송통신대 경영학과 졸

◇이수열(경영학박사) = 외재적 단서가 서비스 평가에 미치는 영향 - 관광호텔 레스토랑 서비스의 구매전 탐색과정을 중심으로 ▲48년생 ▲연세대 졸 ▲95~현재 금강개발 여행사업본부 부장

◇손완수(경영학박사) = 한국 무역업체의 DKI도입 및 구현에 관한 연구 ▲39년생 ▲한국외대영어과 졸 ▲92~현재 (주)한국무역정보통신 이사

◇이만득(경영학박사) = 관광교역전의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36년생 ▲영남대 경제학과 졸 ▲95~현재 배재대 교수

◇윤창훈(경영학박사) = 환경요인이 회계정보 시스템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60년생 ▲충북대 경영학과 졸 ▲89~현재 충정전문대 교수

◇기중서(경영학박사) = 분석적 검토절차를 위한 예측모형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57년생 ▲단국대 회계학과 졸 ▲88~현재 단국대 강사

◇박문호(경제학박사) = 농업회사법인의 유형별 발전모형에 관한 연구 ▲56년생 ▲본교농업경제학과 졸 ▲86~현재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책임연구원

◇최병권(문학박사) = 남한강 상류의 곡류하도 발제관한 연구 ▲58년생 ▲본교 사회교육과 졸 ▲84~현재 배명고 교사

◇이철세(이학박사) = Mossbauer분광법에 의한 Ni- Ferrite계의 금속양이온 함량에 따른 자기적 특성 ▲41년생 ▲경희대 물리학과 졸 ▲83~현재 배재대 교수

◇이해권(이학박사) = 고소소자용 이종접합반도체의 전기 및 광학적 특성 연구 ▲56년생 ▲본교 물리학과 졸 ▲89~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선임연구원

◇장영식(이학박사) = 인구구조의 안정화를 위한 적정출산수준의 연구 ▲53년생 ▲충북대 수학교육과 졸 ▲90~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용기(이학박사) = 대칭반복확률화 응답모형에 관한 연구 ▲38년생 ▲청주대 수학과졸 ▲72~95년 2월 서울교육청 중등교사

◇박미혜(농학박사) = 마디 배양에 의한 장미의 대량증식에 관한 연구 ▲59년생 ▲서울여대 농학과 졸

◇이시영(농학박사) = 산불발생 위험도 및 연소확대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59년생 ▲상지대 임학과 졸 ▲91~현재 산림청 임업연구원 임업연구사

◇양영철(이학박사) = 6- Amimonico-timomide투여 후 햄스터 척수의 형태 및 생화학적 변화 ▲57년생 ▲제주대 증식학과 졸 ▲91~현재 연세대 원주의대 해부학교실 연구강사

◇심원(공학박사) =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이진결정도의 최소화기법 ▲53년생 ▲서울대 공업교육학과 졸 ▲82~현재 서울산업대 교수

◇신승목(공학박사) = 사면활동 해석을 위한 침투 및 변형의 시간종석적 복합 모델 ▲59년생 ▲본교 토목공학과 졸 ▲93~94년 2월 제주대 강사

◇서성연(공학박사) = 방간형성 각형강관 기둥 부재의 구조특성에 관한 연구 ▲64년생 ▲조선대 건축공학과 졸 ▲95~현재 한화공업전문대 교수

◇조길석(공학박사) = 생감페이스트의 저장중 비효소적 갈색화에 관여하는 성분과 그 억제조건 ▲55년생 ▲부산수산대 졸 ▲88~현재 한국식품개발원 선임연구원

◇권동진(공학박사) = 개량 미생물을 이용한 된장의 향미 및 보존성 개선 ▲60년생 ▲본교 식품공학과 졸 ▲85~현재 한국식품개발 연구원 선임연구원

◇정희정(가정학박사) = 녹차가 흰쥐의 혈청 및 간의 지질성분과 항산화계효소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58년생 ▲국민대 가정교육학과졸 ▲92~94년 8월 본교 강사

◇김정숙(가정학박사) = 스커트 제작을 위한 보행동작 분석 ▲50년생 ▲서울대 의류학과 졸 ▲91~현재 서원대 교수

◇허정욱(한의학박사) = 녹용 약침 자극이 흰쥐의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미치는 영향 ▲47년생 ▲본교 한의학과 졸 ▲88~현재 허정한의원 원장

◇홍율희(한의학박사) = 보증익기탕과 향사육군자탕의 병용투여가 S- 180복수암세포를 접종한 생쥐의 세포성 면역에 미치는 영향 ▲본교 한의학과 졸

◇탁의수(한의학박사) = 가미마황탕이 흰쥐의 기관지 평활근 수축성에 미치는 영향 ▲63년생 ▲본교 한의학과 졸

◇박성범(한의학 박사) = 도교사상이 동양의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62년생 ▲본교 한의학과 졸 ▲현재 본교 강사

◇이길재(한의학 박사) = 단삼이 고지혈증 및 죽삼동맥경화증에 미치는 영향 ▲50년생 ▲본교 한의학과 졸 88~현재 동원한의원 원장

〈이상 40명〉

석사학위

대학원

▲한문규 = 아마나식과 정분유식에 관한 연구

▲한주영 = 안반수의의 행법 연구- 『안반수의경』을 중심으로-

▲김동영 = 이통현의 비로자나불관 연구

▲신현승 = 원시불교의 재가생활 원리 연구

▲목경찬 = 심소법의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이상섭 = 『대승지관법문』 연구- 이론과 실천체계를 중심으로-

▲문무왕 = 노산 허원의 백연사 연구

▲정상구 = 까타 우빠니샤드의 해탈관

▲박영길 = 가탁과 범아일여의 실현- 상까라의 Brahmasutrabhasya를 중심으로-

▲신승자 = 채만식의 역사소설 연구- 『옥랑사』를 중심으로-

▲정상훈 = 《선종영가집언해》의 국어학적 고찰- 표기·음운과 문법을 중심으로-

▲최 현 = WH- 이동구문에 있어서 공범주원리 연구

▲오용원 = 농암 김창협 시문학 고- 농암의 사유체계와 시적 실현을 중심으로-

▲김용천 = 순자의 '분'의식을 통해 본 사회·국가관

▲주맹하 = 일제의 공연예술정책 연구- 1920년대를 중심으로-

▲전영숙 = 신라팔부신장상의 연구

▲장희정 = 18·19세기 조계산지역 불화 연구

▲안순례 = 한국 사찰 건축 본부의 용미술 연구(영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임석규 = 발해 반입성 출토 이불병좌상의 연구

▲양은경 = 중국 백산석굴 불교조각에 대한 고찰- 제 2·3굴을 중심으로-

▲유소희 = 『오륜행실도』연구

▲신대현 = 한국 옥기 연구-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함원규 = E. Husserl의 내재와 초월에 관한 연구

▲나정민 = 칸토르의 무한관과 제논의 역리

▲강정훈 = 다산 경학의 윤리적 성격- 『맹자요의』를 중심으로-

▲최미애 = 장르 비평 Gener Criticism에 대한 연구

▲정수완 = 일본 영화속에 나타난 한국인상 연구

▲구본권 =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차동언 = 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미국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조응석 = 한국의 강간실태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이원경 = 일제침략에 대한 조선 정치집단의 대응형태 연구

▲백종익 = 한국 제조업의 산업내 무역 추이분석

▲전상현 = 자본시장개방과 환율변동이 상품수출입 구조에 미치는 효과분석

▲견순필 = 품질분임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자율경영체제 도입을 중심으로-

▲설영규 =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협상에 관한 연구- 인지적 협상이론을 중심으로-

▲박정응 =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한 전환사채 가치평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

▲손승태 = 주식배당공시의 주가반응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찬황 = 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의 대중국진출 과제 및 문제점-

▲조중형 = 외환 및 자본자유화에 따른 환율가변성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채권증 = Periodic Points of Polynomials and Rational Functions

▲김석규 = 6H- 실리콘카바이드의 Schottky 및 Ohmic contact에 관한 연구

▲류영선 = MBE법에 의한 CdTe(111)/S(100) Heteroepitaxy성장

▲주상명 = Poly- β(1,4)- D- glucosamine- g- polyethyleneoxide의 합성 및 물성에 관한 연구

▲최인자 = N- Isopropylacrylamide와 N- Isopropylmethacrylamide로 이루어진 공중합체의 합성 및 물성에 관한 연구

▲손영준 = Oxygen Atom Transfer of Metal Oxo Complex

▲김현빈 = 종이 제조사 양성화처리된 Dialdehyde- Starch의 첨가효과에 관한 연구

▲손지영 = Pur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Soluble Acetylcholinesterase from Quail Brain

▲한기돈 = Fusarium solani에 의해 발생되는 근부병 방제를 위한 근면 정착미생물과 균근의 길항효과 연구

▲안상현 = 복수암세포 Sarcoma 180 Cell가 생쥐 비장과 가슴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면역조직화학적 연구

▲윤관기 = GaAs MMIC제작을 위한 수동소자 설계 및 제작에 관한 연구

▲박진우 = KSFM 전처리 자력 등화기

▲이윤경 = 능동정합회로를 이용한 광대역 증폭기 구현

▲한상훈 = 한글 및 영문 문서에서 폰트 매칭을 위한 붙은 글자의 분리

▲최은혁 = 역공학을 이용한 C 및 C++원시 코드 재사용 시스템의 개발

▲주완호 = 매립장내 침출수 저감을 위한 대체복토재 활용에 관한 연구

▲김규성 = 건축디자인 착상인지모델에 관한 연구

▲김인범 = 생분해성 고분자의 분해도와 물성과의 관계 연구

▲이동락 = 석유화학공정에서 원유의 파울링 현상에 관한 연구

▲임홍열 = 쇼트닝 및 지방대체물질이 쿠키의 반죽 적성과 전성에 미치는 영향

▲이희철 = 단백질의 소화·흡수기능 감퇴 환자를 위한 계란단백질 가수분해물의 조제와 그 특징

▲은지현 = 선물선택행동과 받은 선물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추석명절 시기를 중심으로-

▲안유정 = 광고에 대한 자아일치성이 상징적 소비성향 및 물질주의에 미치는 영향

▲박정은 = 설자도염기양이 Acetylcholine으로 유발된 흰쥐의 기관지 평활근 수축에 미치는 영향

▲김희진 = 태산반석산이 면역기능에 미치는 영향

▲성연수 = Candida albicans균의 생육을 억제하는 한약재 탐색에 관한 연구

▲김동일 = Gardnerella vaginalis균의 생육을 억제하는 한약재 탐색에 관한 연구

▲문진영 = 간유·기문혈의 예구 및 당귀미약침이 백서의 고지혈증에 미치는 영향

▲윤철호 = 좌귀음과 우귀음이 노화 Rat의 과산화 지질 생성 및 활성산소 생성계 효소 활성에 미치는 영향

▲고희영 = 포허탕이 면역기능에 미치는 영향

▲홍희탁 = 혈부축어탕이 면역기능에 미치는 영향

▲정승현 = 홍화가 고 Cholesterol 식이에 의한 가토의 고지혈증에 미치는 영향

▲신현철 = 삼화산이 심장 Na- K- ATPase활성에 미치는 영향

▲박기환 = 복용 약침자극이 흰쥐의 고지혈증에 미치는 영향

〈7면으로 이어짐〉

〈6면에서 이어짐〉

불교대학원

▲이대성=북점의 선사상 연구
▲조성호=현대 불화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
▲김수정=이장번뇌에 대한 연구
▲김덕만(오원)=노인복지에 대한 불교적 접근방안 연구
▲박재근(현성)=불교 청소년복지에 관한 연구

행정대학원

▲김장호=도시재개발사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 도심권을 중심으로-
▲신형경=한국 민·군관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괴리현상을 중심으로-
▲김광열=화물운송 관리체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항 컨테이너 수송체제와 관리를 중심으로-
▲음용덕=육군 사병의 사기 증진에 관한 연구
▲조진현=한국 국방기획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P.P.B.E를 중심으로-
▲김기일=한국경제와 적정 국방비에 관한 연구
▲위보환=군조직내의 의사소통 효율화에 관한연구 -육군보병부대병사들을 대상으로-
▲장승호=한국의안보관광자원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DMZ(화천·양구·인제) 지구를 중심으로-
▲박청일=비공식집단의 의사결정행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친목단체를 중심으로-
▲황위환=지역사회복지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성남시를 중심으로-
▲이상래=한국 지방의회의 권한 조정에 관한 발전방안 고찰
▲지귀환=국회의정활동의 텔레비전중계방송에 관한 연구
▲이용일=한국언론에 대한 정부통제에 관한 연구 -제5, 6공화국을 중심으로-
▲오원용=한국항공산업 발전에 관한 연구 -항공산업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강철우=한국 국방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연구 -국민경제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김치원=한국 정보통신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연구개발체제와 정보통신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조정동=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체의 예상모형에 관한 연구 -한반도와 주변국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김양현=화학무기 금지협약의 전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희철=동서독 통일과정에서의 군통합에 관한 연구 -남북한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최기덕=한반도 안보환경과 군비통제 방안 연구
▲류수희=다자간 안보협력체제에 관한 연구 -아·태지역 안보협력체제 구상을 중심으로-
▲김윤석=우리나라 수도권의 교통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강영욱=군 정신교육에 관한 연구 -국민정신교육과 관련하여-
▲조규섭=북한 행정체제의 현실과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임동구=북한과 중국의 사회주의비교연구
▲변상복=남북한 군비통제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
▲최정식=도로구조가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안창훈=신임경찰 교육훈련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간부후보생 및 순경과정을 중심으로-
▲박웅규=한국경찰과 민간경비의 효율적 방범활동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에 과한 연구 -지령, 통제실 합동 운영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양락운=지방화시대를 위한 한국경찰제도의 발전방안
▲김진영=경찰 방범활동의 실태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점수=직장인의 노후생활 준비의식 연구
▲이영세=기초자치단체의 생활보호사업 개선방안 연구 -충남 서산군은 중심으로-
▲남윤근=빈곤노인의 생활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최명숙=광주광역시 노인의 생활실태 조사연구
▲이영윤=한국의 농어민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김래산=한국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연구 -장애인 등록제를 중심으로-

경영대학원

▲엄광열=유엔 국제물품 복합 운송 조약상의 복합운송인의 운송책임에 관한 연구. -문제점과 개선방향 중심으로-
▲최용민=D/A거래 보험사고의 원인에 관한 연구.
▲구자혁=무역대리점의 무역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실태. -정밀기기 관련업을 중심으로-
▲김학영=WTO 섬유협정에 따른 한국 섬유산업의 대응방안.
▲김헌준=선진국 반덤핑 관세에 대한 수출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박재영=직장불만족이 종업원의 직장내 반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동원=변혁 리더쉽과 거래적 리더쉽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진형두=농산물 소비자의 만족·불만족에 관한 연구. -농협 서울 농산물 전시판매장 이용실태를 중심으로-
▲최정규=주부의 소매점 선정에 관한 연구. -라이프 스타일 분석을 중심으로-
▲남경익=그린마케팅에 있어서 환경정보숙지자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곽규환=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진명국=사업부제 업적평가를 위한 효율적인 고통비 배분.
▲박덕규=주식양도소득과세에 관한 연구.
▲소오영=군 면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군 사기 증진 대책을 중심으로-
▲남양현=우리나라 상속세도의 개선방안.
▲염동권=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효과.
▲류승균=기업합병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학우=금융자산소득 종합과세에 관한 연구.
▲정우성=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원가계산과 가격결정에 관한 연구.
▲김성길=노사관계 갈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수광=경영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조직과 보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통신 현행제도를 중심으로-
▲백도영=공동주택 하자관리에 관한 연구.
▲신위철=불량주택 재개발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이두성=부동산 투기인제 대책의 개선방안
▲이정조=공시지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장세철=한국의 임대주택업의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조이규=충일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제도에 관한 연구.

교육대학원

▲이민섭=학교 육성회 운영에 관한 국제 비교
▲이재희=교사 공개전형제도의 현황및 요구 분석
▲이동수=인문계 고등학교 교사의 근무여건과 교직헌신도와의 관계-서울특별시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서호진=학교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분석적 연구
▲강팔강="쓰기"지도법 연구-초등학교에서의 표현력 신장을 위한 방안 모색-
▲노건환=송강가사에 나타난 용사의 특성 연구
▲강순조=천주가사의 표현기법과 의식에 관한 연구
▲김우정=보은 지역 방언의 특위-상주 지역 방언과 비교를 통하여-
▲정찬호=지형도에 나타난 취락 입지 분석
▲정 민=한국과 일본의 관리교과서 비교·분석
▲정이열=한국 광복군의 창설과 군사활동
▲허은심=양촌 권근의 교육사상 연구-'권학사목'팔조를 중심으로-
▲김은주=백암 박은식의 교육사상에 관한 고찰
▲강인숙=건당 유길준의 경제사상 연구
▲이미영=한말 태극학회의 애국계몽운동 연구
▲김재순=문제설정 수업을 통한 수학학력 신장에 관한 연구
▲임진택=컴퓨터 보조수업(CAI)을 통한 수학학습 효과에 과한 연구
▲이경희=과제학습을 통한 주관식 분항지도에 관한 연구
▲권태욱=수학교육과정기별 교과내용의 비교·분석-중학교 수학교과과정을 중심으로-
▲김진휘-맹자의 민본주의와 교육학적 의의-왕도정치사상을 중심으로-
▲안성준=북한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청소년 정치교육을 중심으로-
▲이지현=로웬펠드의 미술교육 사상 및 방법론 연구
▲이부실=고구려 고분 벽화에 대한 연구-시기별 주요고분을 중심으로-
▲이용기=이인상·김홍도 회화에 나타난 전통과 한국화의 현대성 모색-인물을 중심으로-
▲전성호=Marcel Duchamp연구-그의 작품에 나타난 시간적 요소를 중심으로-
▲권숙병=정선(겸재)의 진경산수화의 연구
▲한인습=불교적 예견을 중심으로 본 〈사씨남정기〉의 작품 구조와 현실인식
▲조희창=원교 이광사의 학문과 예술-서예를 중심으로-
▲권승주=경마 기수의 경기불안이 경주성적에 미치는 영향
▲나화균=기계운동의 적정점피드백 분석을 통한 기능향상의 방안에 관한 연구
▲조임형=태권도 교육의 실태와 방향에 관한 연구
▲박정일=배구선수의 경기성향 및 인지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수진=어휘음운론에 관한 연구
▲이경미=THOMAS HARDY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관-Tess of the d'Urbervilles를 중심으로-
▲김철중=한국 학생들의 영어 마찰음 지도방안
▲홍광표=Sonnet과 한국시가에 나타난 사랑
▲노 진=Charles Lamb의 Essays of Elia연구
▲박진욱=수소화시킨 GaAs의 DLTS의 연구
▲고창영=한국산 거미류의 과별실젖형태 비교 분석
▲김기준=가로수 잡복소내에서 월동하는 거미류군집구조의 조사연구(대치, 구로지역을 중심으로)
▲황미향=불교수행의 교육학적 의의에 관한 연구
▲최웅호=인성교육에 있어서 불교적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
▲방금지=불교적 관점에서 본 아동의 도덕교육 연구

정보산업대학원

▲장병욱=컴퓨터 예약시스템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콘도미니엄 사용자 만족도를 중심으로-
▲김화규=정보화사회를 대비한 전산전문교육기관의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김행원=국내기업의 정보활용 절차에 관한 연구
-공개정보 이용을 중심으로-
▲박상경=급성충수염 환자의 진단을 위한 의사 결정 지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정병창=국내시스템 통합(SI)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SI사업자를 중심으로-
▲김재식=골관지 제조업체의 제조시스템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H업체 컨베이어 물류시스템 중심으로-
▲손동기=위기관리에서 효율적 자원분배를 위한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홍수중심의 재해초기 구호활동 중심으로-
▲황금연=모듈 재사용률 제고를 위한 재사용 모듈 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
-KI영업전산 업무를 중심으로-
▲정영북=국내 중소기업의 정보화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창훈=방송기자의 개인 인권보호의식에 관한 연구
-명예권을 중심으로-
▲이정행=방송과 진폭특성의 측정 및 통계적 모형
▲장석문=디지털가입자선로부호 2B1Q의 전송거리 조사에 관한 연구

산업기술대학원

김송한=인텔리전트 빌딩 통합 안전시스템 구성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유승재=클라이언트/서버 방식의 비용 분석 모델에 관한 연구
▲남효갑=학교교실 개별 가스난방의 실내환경 영향 분석
▲박승철=부동산경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부동산가격 안정화 방안

지역개발대학원

▲김 산=군 조직에 있어서 직업군인의 욕구충족 실태에 관한 연구
▲박정석=교장의 지도성 유형과 교사 갈등에 관한 연구-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조용우=울산시 도시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장황래=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현일-노인취업문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경주를 중심으로-

〈이상 215명〉

분반·폐강 및 조건부 개설 대상 강좌

◇ 분반 대상 강좌명

학과	야수 구분	학수 번호	강좌 번호	교과목명	담당교수	수강 인원
	교인	11140	05	한국문화와 불교	목정배	368
	〃	12102	01	선실습	채택수	298
	〃	12102	02	〃	강문선	241
	교사	33140	02	매스컴과 사회	정윤무	194
	교자	54102	01	건축과 주거환경	조정식	251
	〃	〃	02	〃	이문보	157
	〃	〃	03	〃	〃	168
	〃	63140	02	생명과학	김주필	130
	〃	63178	01	일반생물학	〃	157
	〃	73042	02	지리학개론	김창환	166
	교인	74101	03	한국의 전통문화	임 영 정	175
	〃	〃	04	〃	〃	196

◇ 폐강 및 조건부 개설 대상 강좌 명

학과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강좌 번호	교과목명	담당교수	수강 인원	조치
	자선	00042	00	종급한국어	최용재	1	폐강
	〃	00044	00	한국불교	강사1	0	〃
	〃	00046	00	한국민속	임돈희	1	〃
	교인	00102	01	중급불어	박귀애	16	조건부
	〃	00102	81	〃	〃	5	폐강
	〃	11140	04	한국문화와 불교	신성현	16	조건부
	〃	11140	06	〃	〃	8	폐강
	〃	11140	82	〃	차차석	7	〃
인도철	〃	13216	00	힌두이즘	김선근	3	조건부
〃	〃	13322	00	빠-리불전강독	최경아	4	〃
〃	〃	13324	00	티베트어	이태승	4	〃
〃	〃	13326	00	중세인도철학강독	김선근	5	〃
	교인	14170	02	사관의 이해	박영철	34	〃
	〃	14170	82	〃	윤명철	17	〃
사	전선	14312	00	동양사강독	정병준	7	〃
	교인	15160	02	변증법적 유물론	이만근	31	〃
	〃	15160	82	〃	〃	10	〃
	교사	16108	01	윤리와 사상2	정병조	41	〃
국민윤리	전선	16320	00	남북통일문제연구	구승희	7	〃
	교인	21140	02	문학의이해	고재석	28	〃
	〃	21160	01	한국어의 이해	김영배	8	폐강
	〃	21160	81	〃	장영길	8	〃
영문	전선	22404	00	영어학특강	박명관	4	조건부
독문	전선	23402	00	19C 독문학특강	임호일	5	〃

학과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강좌 번호	교과목명	담당교수	수강 인원	조치
독문	전선	23404	00	괴테연구	이정순	7	조건부
〃	〃	23406	00	현대독희곡	황혜인	5	〃
	교인	24102	01	중급일본어	김연주	44	〃
	〃	24102	02	〃	윤행순	44	〃
일문	전선	24414	00	일본고전강독2	김기서	3	〃
	교인	25102	01	중급중국어	박주방	31	〃
	〃	25102	81	〃	〃	11	〃
	교사	31042	82	법학개론	미정1	15	〃
법	전선	31328	00	한국법제사	이종일	7	〃
	교사	32044	82	국제정세변화와 한국	이규배	15	〃
	〃	32140	01	현대정치이데올로기	이세구	44	〃
	〃	36140	03	경제학입문	김인제	36	조건부
	〃	36150	81	노자관계론	강사4	2	폐 강
무역	전선	37322	81	무역수리분석	김기중	7	조건부
	교자	42140	82	자연과학개론	김송강	7	폐강
	〃	42160	02	과학사	오용탁	22	조건부
물리	전선	42408	00	고급물리학 실험2	강태원	5	〃
〃	〃	42412	00	반도체물리학	조춘영	5	〃
	교자	43102	81	생활과 화학	박봉서	10	〃
	〃	44140	02	일반통계학	이관제	17	〃
통계	전선	44314	00	비모수통계학	〃	6	〃
	교자	52102	81	전기와인간생활	김필수	4	폐강
전기	전선	52408	00	시스템공학	장재명	0	〃

학과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강좌 번호	교과목명	담당교수	수강 인원	조치
토목공	전선	53414	00	수력발전공학	이상일	0	폐강
식물자원	〃	61416	00	농산제조학	김영미	7	조건부
응용생물	〃	63212	00	세포학 및 실험	김혜영	7	〃
〃	〃	63404	00	해충방제학	이해풍	5	〃
〃	〃	63406	00	식물병 방제학	이태수	5	〃
생명자원경제	〃	65308	00	농업부기	강사2	2	폐강
국어교육	〃	72420	00	희곡론	김장호	7	조건부
	교자	73140	03	일반지구과학	신 규	26	〃
역사교육	전선	74428	00	동양사세미나	정태섭	3	〃
수학교육	〃	75218	00	계산기수학	홍석강	6	〃
〃	〃	75320	00	수리논리학	〃	3	〃
연극영화	〃	83226	00	무대미술실기2	백영수	4	〃
〃	〃	83228	00	율동실기2(동양)	김기수	6	〃
〃	〃	83230	00	영화촬영실기	민병록	7	〃
〃	〃	83234	00	판소리실기	안숙선	7	〃
〃	〃	83340	00	무대기술실기특강	한규용	6	〃
〃	〃	83412	00	연극비평	김홍우	1	폐강
〃	〃	83416	00	연극제작실기4	신영섭	0	〃
〃	〃	83418	00	영화제작실기4	정재형	1	〃

* 위 내용은 분반·폐강 대상 강좌로서 수강신청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충원되면 강의는 폐강되지 않습니다.

교 무 처 장

문화단신

공연안내

◇배꼽춤을 추는 허수아비…'서편제'의 작가 이청준이 80년에 발표한 단편 '조만득씨'를 각색한 작품이다. 서울 변두리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던 조씨가 과대망상성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 신세를 지게된다. 돈이면 뭐든지 해결되는 세상에서 가난한 조씨가 주위의 억압적인 상황로 인해 자신이 백만장자라고 믿어버리면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여준다. 전통음악에서 랩까지 다양한 음악도 선보인다. 극단 아리랑 공연. 마당골 소극장에서 9월1일부터 10월17일까지. 7450-0745

◇한국현대연극의 재발견3…'연극으로 보는 해방 50년'이 부제다. 해방이후 발표된 대표적 단막극 6편을 선정하여 '역사의 가슴을 여는 이야기들' '말할수 없는 시대의 소리들'이라는 두개의 주제에 맞춰 재구성했다. 첫번째 주제에는 정한룡 연출의 '의자연석희의' '멍추같은 영감' 윤영선 연출의 '목이 긴 두사람의 대화'로 구성되어있고, 두번째 주제에는 이주홍작 '대차' 신명순작 '전하' 오종우작 '조작가와 탐정'이 구성돼 있다. 한편 연극이 시작되는 9월1일 연우소극장에서 한국극예술학회가 주관하는 '희곡작품에 나타난 해방 이후의 사회적 인식'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이 열린다. 극단 연우무대 공연. 연우소극장에서 9월1일부터 10월1일까지. 744-7090

비디오소개

◇쭝앙 비디오테크-아트 필름 컬렉션…영화탄생 1백주년 기념사업으로 영화사상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언급돼 왔으나 상업적인 이유로 국내에 소개되지 못한 작품들을 출시한다. 고전명작을 중심으로 유럽 아트필름, 허리우드 인디필름, 제3세계 영화등이 주류를 이룰 예정이다. 이미 출시된 작품으로는 '달콤한 인생' '오셀로' '사탄의 태양 아래' '베로니카 포스' '어둠선' '웨더바이'가 있다. DM발송을 통해 우편판매가 주력한다고 한다. 문의는 751-9331, 9465로.

책소개

◇종군위안부들의 태평양전쟁…태평양전쟁중에 해군성에서 근무했던 야마다 메이코가 직접 보고들은 사실, 종군기자들의 증언과 기사, 미국측 심문자료 등을 바탕으로 위안부문제에 대해 일본인 스스로 고발하는 내용을 쓴 책이다. 도서출판 쑥맥. 6전5백원

히포크라테스와 허준

정 지 천
(한의대 한의학과 교수)

보약

혈액 생성·신진대사 촉진·면역력 증강에 도움

계절에 맞는 보법으로 음양기운 균형 맞춰야

누구나 한 번쯤은 보약을 먹었을 것이다. 특히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 거무티티하고 쓴(실제로는 치료약에 비해서 훨씬 덜 쓰거나 오히려 달짝지근하다)탕약을 억지로 마시느라 여간 고역이 아니었을 것이며, 게다가 보약을 먹는 동안에 술이나 고기 등을 먹지 못하는 것도 꽤나 참기 힘든 일이었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쇠약해지고 기력이 떨어져 쉬이 피로를 느끼고 의욕이 저하될 때 보약을 먹는다는 것은 상식으로 되어 있으니 도대체 보약은 어떻게 몸에 좋은가?

한의학에서 보라는 것은 8가지 치료 대법(한, 토, 하, 화, 온, 량, 보, 소)가운데 하나로서 선천적으로 혹은 질병에 의해 허약해진 부분, 허한 곳을 보충시켜 주니, 몸속의 기와 혈을 보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약의 사용은 질병의 치료와 예방, 성장 촉진, 노화 방지, 그리고 오장육부의 기능 회복 및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혈액을 생성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등 인체의 생산 가능 활동이 왕성해지도록 도와 주며, 생체가 가지고 있는 면역방어 능력과 자연 치유력을 증강시키는 것이지, 포도당 주사나 호르몬제재 처럼 필요 성분을 직접 넣어주므로 해서 몸에서의 생성이 둔해지도록 하는 것과는 다르다.

흔히 옛부터 봄과 가을은 보약의 계절이라 일어 왔다. 여름과 겨울이 각각 양과 음의 기운이 왕성하여 체력 소모가 심하므로 봄과 가을에 미리 보익해 줘야 하며, 여름과 겨울에 무리한 경우 가을과 봄에 그 부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4계절의 어느 때라도 정기가 허약하여 질병에 대항하지 못하며 체내의 음양 기운이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는 보약으로서 보강하고 균형을 이루게 해줘야 하며, 각 계절에 적합한 보법이 있다. 또한 허약한 장부와 상태 및 체질에 따라 달리 써야, 효과가 있으니 열성과 한성 체질에 따라, 뚱뚱한 사람과 수척한 사람에 따라, 남녀노소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보약은 효력이 느리다는 얘기가 많으나 허약한 신체 기관을 보강하거나 음양의 균형을 조정하여 전신의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바싹 말라빠진 나무를 살리려면 물을 조금씩 계속적으로 줘야지 한 번 흠뻑 주어서 되살리기 힘들듯이 허약이 심한데 한 번 먹어서, 금방 효험이 나타나겠는가?

한편 의식동원약식일여라 하여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으므로 식보는 약보와 마찬가지이나 삼계탕과 흑암소탕은 물론이고 곡식, 채소, 과일 등도 적합하게 쓰면 보약이 된다.

보약이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건강에 너무 자신을 가져 망종하게 생활하거나 몸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결핏하면 약을 먹어대는 건강 염려증(hypochondriasis)환자들에겐 일시적인 것일뿐 무슨 소용이 있으랴.

◇우리 주위의 성 담론

성문제 공론화한 광고 긍정적

"무엇이든 막아서 얻는 이득보다 풀어서 얻는 것이 크다"

지난 7월 한달동안 일간지에 꾸준히 실린 광고가 있었다. '박영률출판사의 섹스북 광고-00대학교 젊은이들이 섹스와 섹스북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책사진을 나열하고 이름난 평론가의 짧은 비평들이 실린 광고라면 그다지 색다를 것도 없겠지만, 우리 시대에 아직은 민감한 성문제에 관해 대학생들이 토론한 결과를 성실히 옮겨놓은 것이었다.

5개학교를 선정해 자유토론식으로 진행된 내용인데, 참여한 사람은 93·94·95학번 위주였다.

이미 읽은 사람도 많겠지만 이들이 나눈 얘기를 잠깐 인용해보자.

-자신은 솔직한가?

-명색이 대학생이란 사람들도 성에 대해 솔직하지 못하다. 나도 이책을 들고 다니면서 내놓기가 쑥스러워서…

-책을 보는데 동생이 갑자기 들어왔다. 고등학생이라면 이정도는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생에게 보여주기는 뭐했다.

-우리가 부모가 될 즈음에는 변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부모님들처럼 될지도 모르지만.

-성이 문란하다는 것과 자유롭다는 걸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면 해결될 문제 아닌가.

-자기 식욕과 식성을 알게되면 폭식하지 않을 것이다. 성도 마찬가지다.

-실제로는 성에 대해 금기하면서 작품엔 현실보다 더 적나라하게 묘사한다.

-작가 색깔이다. 자기만의 독특한 시선으로 성을 본다. 그것만큼 솔직할 수 있는 얘긴 없다.

-대개 일탈이라 생각한다. 실제 경험있는 친구도 정상적으로 생활한다. 가슴에 주홍글씨가 박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세대의 성문화가 있다. 다른 성관련 책에서도 다루긴 하지만 결국 인정하지 않으려고 다른 쪽으로 끌고간다. 어른들의 시각으로 보는거다.

-난 구세대라고 자부하고 다녔다. 책을 읽고 그 생각이 깨졌다. 안다는 것 자체가 개방이다.

-책이 보수적 사회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까?

-사오십대 남성들에겐 반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이 내용이 보편화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공론화가 부추김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나.

-책 첫페이지에 자연그대로라는 슬로건이 있다. 성은 이상하고 혐오스런 것이 아니다. 자연의 섭리라는 주장이 맘에든다.

-성의 공론화는 말 못했던 것들을 말할 수 있게 한다. 어두운 곳에 묻어 두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내놓고 싶다.

이 광고에 실린 각자의 의견들은 어떤 논리에 따른 체계적인 가설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다. 아직도 금기된 성역이라서인가. 질문에 답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다. '혹시 어른들이 오해할지도 모르니까'라는 전제를 달고서 말이다.

조금 비껴나간 얘기겠지만, 지난 6월28일 면직처분된 마광수교수와 그의 책 '즐거운 사라'에 대한 법정판결을 이들에게 맡겼다면 어떨까. 마교수가 기소됐을때 옹호(?)론적인 글을 쓴 강준만(전북대)교수는 자신의 글을 어느 신문이나 계간지에도 실을 수가 없었다고 털어놓은 적도 있었다.

마교수에 대한 처분에 관해서는 성에 대한 규제, 법적 판결등을 없애자는 주장은 아직은 있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 규제의 기준을 공론화시켜 얻어내자는 주장이 훨씬 많은 공감을 만들어 낼지 모른다.

"이것이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길이란 자연스럽게 함께 토론해보자는 것이 아닐까 싶다. 전남대 한 젊은이가 한 말을 인용한다.

-무엇이든 막아서 얻는 이득보다 풀어서 공론화시켜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

-취사선택해서 규제할 건 규제하고…

〈이유리 기자〉

달하나 천강에

미래사회와 자기갱신

이제는 미래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앞으로 모든 것의 변화가 더욱 가속적으로 빨라져가리라는 예견은 하나의 상식이 되어 있다. 지식과 기술은 말할것도 없고 시간과 공간 그리고 각종 물품과 조직 등 모든 것이 일시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리하여 끊임 없이 신기하고 희한한 것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사라지곤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과거처럼 연속적이거나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탈연속적이고 단층적(斷層的)이며 이 변화의 진행 또한 변증법적이기보다는 탈변증법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발상법 자체의 전환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대학들은 이러한 시대상황에 진지하게 대응하면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관리체제의 개혁에 골몰하고 있다. 한국 또한 이른바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 비해서는 뒤져 있지만 이러한 몸부림으로 진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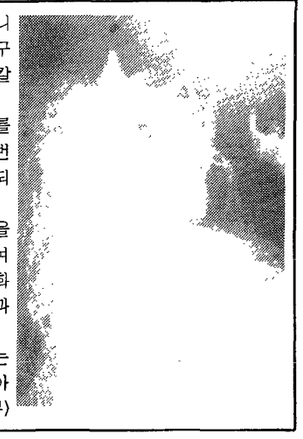
필자는 새 학기에 접하면서 학생들이 위와 같은 대전환의 시대적 상황을 직시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이러한 당부에는 기존의 이론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맹종하지 말고 그러한 이론의 전제가 무엇이며 과연 이와는 다른 전제는 가능하지 않은가 하고 끊임 없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따져보는 습관을 지니도록 하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러한 사람만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성격을 지닌 미래사회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갱신시켜 갈 수 있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이론이나 지식을 창출하여 자기자신은 물론 사회에 능동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학에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선진국에 비하여 전공분야에 대한 독서량이 매우 부족하다. 학생들 스스로가 학점취득에 만족하지 말고 강좌와 관련된 서적들을 면밀히 따져가며 폭 넓게 읽을 것을 권하고자 한다. 그 가운데서도 전공분야의 이론발달에 관한 역사는 꼭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래야만 그 분야의 학문이 어떠한 시대적 배경속에서 어떻게 하여 발달되어 왔으며 그리고 현재 그 학문에서의 논란의 쟁점인 해결해야 할 연구과제는 무엇인가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그 분야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전망이 가능하기도 한 것이다.

논리적 사고의 능력을 갈고 닦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일시성을 지닌 변화의 사회에서는 언어를 매개로 한 논리적 사고보다는 영상을 매개로 하는 초논리적 사고 또한 중요하게 된다. 다시말해서 직관적 사고능력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불교의 관법(觀法)이나 예술적인 감성을 풍부화하는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싶다.

박 선 영 사범대 교육학과 교수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개강도 어느새 1주일이 지나갔구요. 2학기를 맞아 문화면을 채울 칼럼들을 소개합니다.



격주 연재로 여러가지 의학정보를 알려낸 '히포크라테스와 허준'은 이번 학기부터 양방과 한방을 교대로 싣되 매주 연재합니다.

또, '영화의 패러독스'는 영화평을 주로 싣던 기존의 성격을 탈피하여 영화에 관련된 여러가지-감독, 영화장르, 촬영기법, 소도구등-를 비평과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다양한 내용, 독자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을 담아낼 것을 약속할께요. 〈문화부〉

시사영어학원

"

수많은 선배님들의
외국어 배움터 였던 「과거」의 시사영어학원은
새모습, 새시설로 새롭게 태어난 「오늘」의 시사영어학원을
뛰어 넘어 21세기의 도전에 동참하는 당신의
「미래」의 시사영어학원이 되겠습니다.

"

TOEIC, TOEFL L·C, AFKN News & Drama 청취반
HEARING, 시네마영어천국, TIME한국관련기사, 영작문
Korea Herald 사설, 성문종합, 기본영어, 취직영어

영어회화(한인·미인), WRITING SEMINAR,
시사종합TOEFL, TOEFL, Vocab22000, 거로VOCAB,
Man To Man기본영어

일본어 문법·독해·회화, 일본어 능력시험 대비반
일본인 회화, 생활일어 회화, 러시아어 문법·독해·회화

TOEFL 600, GRE 2000, GMAT 700, 주말특별반
M·A ENGLISH(대학원진학반), 통역대학원반(기초, 실전)

종로2가 종로서적 뒤 734-2442

외국어 교육 1번지!

YBM 시사영어사 직영
현대 시사 어학 학원

英語·日語·中國語

- 엘리트 종합 TOEIC
- 안박사 TOEIC
- TOEIC L.C.
- TOEIC R.C.
- 아카데미 TOEFL
- TOEFL 시험반
- TOEFL L.C.
- AFKN 청취
- TIME
- VOCABULARY
- 영작문연구, 기초영작
- 영어실력기초
- Side By Side 회화
- Interchange 회화
- 페리언 영어코스
- 영어 순해
- 일본어 문법·독해
- 일본인 일어회화
- 중국어 문법·독해
- 주말 특별 과정

미국인 회화(ECC)과정
(English Conversation Course)
— 정원제·Level Test후 반 편성
— 강사진 전원 Native Speakers
— 본 학원에서 개발한 최신교재 사용

매월 1일 개강 — 수시 등록·수강
대표전화 : 276-0509

파고다 공원 맞은편 시사영어사 뒤

세계화의 길잡이 — 35년 전통의 명문학원
The Korea Herald 학원·어학원
개강: 9월 1일

외대통역대학원 합격율 최고! 내외국인 유명강사 60명 열강!!
관공서, 기업체임직원 외국어 위탁교육 및 입사, 승진, 능력평가시험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영어·일어 (文法, 讀解, 會話)

- 英語會話 - 한국인반, 미국인반 (초급, 중급, 고급)
- 일반영어 - 영어실력기초, 영작문, VOCABULARY
- AFKN뉴스반, L/C(청취)반, 아카데미TOEFL, TOEFL, TOEIC종합
- 時事해설 - 코리아헤럴드 社說, TIME
- 日語文法·讀解·會話 - 초급, 중급, 고급, 일본인 회화반
- 통역대학원 입시반 (영어, 일어, 불어)

특수반 운영 — TOEFL 실전문제풀이반, TOEIC종합 / 일본어시험 대비반, 고급 영작문

美國人 영어회화

■강사전원 Native Speakers ■12명 정원제 운영
■기초부터 Free Talking (Advanced)까지 12단계
■1일 2시간, 주5일 수업 ■Level test후 반편성

- World News Drama - AFKN TV뉴스, 영화, 드라마 중심
- TOEFL, TOEIC, GRE종합반 - 단기간내 고득점 목표
- Business English 및 영작문반 - 무역실무 및 유학준비생을 위한 강좌
- 中國語 - 무역관계, 개인사업등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필수기본과정
- 통역대학원 입시반 - 외대동시통역대학원 입학목표
- 한국어반 - 주한 외국인의 한국말 습득과정

(을지로입구역 을지서적 위) 을지로학원 ☎ 757-0419 757-0420
(4호선명동역 30m 거리) 명동어학원 ☎ 727-0271/2 753-9155

교수채용, 무엇이 문제인가?

학연 인맥의한 채용…갈등야기
투명한 심사·제도적 보장 미흡

◇교수채용에 있어 수요자로서의 학생참여가 보장되고 심사기준과 과정이 명확히 공개되어야 한다.사진은 이번학기 채용된 신규교수들

"이번에 새로 뽑은 우리과 교수 봤니? ○○교수 연구실에 있던 조교더라!"

"우리과는 적합한 인물이 없어 다음학기로 교수채용이 연기됐대…"

학기시작 전후로 교수채용 대상학과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들이다.

해마다 교수채용 시기가 되면 학교-학생간의 갈등과 인맥, 파벌에 따른 교수채용으로 교수임용이 이뤄지는 모든 학과에서는 분규와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인맥, 파벌? 이젠 그건 옛말이죠! 학력및 연구실적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있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교무과의 한 관계자의 말처럼 학력과 연구실적 등이 교수임용의 주요 기준이 되고 있으나 여전히 학연, 인맥 위주의 교수채용은 지울 수 없는 의혹으로 남아 있다.

끊이지 않는 잡음

이번 학기에 본교는 20명(서울캠14, 경주캠6)의 신규교수가 채용됐다. 28개 학과에 총51명을 채용할 계획이었던 95학년도 2학기 신규교수 채용은 지난 5월24일 1백82명이 지원한 가운데 마감된 후 학과심사를 거쳐 지난 14일 열린 재단이사회에서 최종결정되었다. 이중 15학과에서만 교수채용이 이루어졌다. 교수채용이 연기된 학과에 대한 학교측은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교수채용이 연기된 국어교육과 및 반도체과학과 등의 학생들은 채용연기의 명확한 이유제시를 학교에 요구하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해마다 반복되는 '연례행사'처럼 치뤄진다.

제도의 모순

본교 교수 채용과정을 살펴보면 ①해당학과 충원요구 ②교원인사심의위원회 심사 ③초빙공고 ④학과심사 ⑤교원인사심의위원회 심의 ⑥총장주재 인사위원회 심사(면접)⑦재단승인의 순으로 되어있다.

이런 과정속에서 교수채용의 잡음은 학과심사와 총장주재 인사위원회 심사(면접)중에서 발생한다.

지난 91년1월 본교는 인맥파벌에의한 교수채용방지와 민주교수영입을 위한 합의가 학생대표와 학교당국의 공동합의사항으로 이뤄졌다. 이때부터 교수채용에 교수·학생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일부 학과에서만 학생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을뿐 대부분의 학과가 교수들에 의해 신규교원 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학과심사 이후 추천된 신규교수들이 학교당국의 심사과정에서 유보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즉, 학과심사 과정에선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뽑느냐' '학생이 평가를 하면 얼마나 깊게 하겠느냐'등 교수의 불신으로 인해 학생참여가 공개강의·세미나 등에 반영되지 않은채 학과 교수들의 인맥구도에서 후보자를 뽑으려해 학생들과 마찰을 빚게된다. 더불어 학교당국의 심사(총장등 인사위원회와의 면담)과정에선 학과의 의견을 무시하고 '학벌'우선의 교수채용을 결정해버려 인맥·파벌에 의한 인사라는 의혹을 사게 되는 것이다.

학생참여 보장 미지수

대부분의 사립대학의 교수채용을 살펴보면 교수채용권한이 단위학과의 교수들에게 있어 학연과 인맥이 작용하는 가운데 교수들끼리 암투를 벌이는 난맥상을 보인다. 채용분야부터 과의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결정하는게 아니라 미리 한사람을 선정해 놓고 그사람의 전공에 맞게 과의 채용분야를 결정해 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이번학기 본교 교수채용과정에서 학과심사결과 두명의 후보가 정해져 총장면담이후 한후보로 채용이 결정될 쯤에 다른 후보와 인맥관계에 있는 과교수의 반대로 학과 교수간의 불화양상이 드러나 다음학기로 채용이 연기된 학과가 있었다.

이런 실정에서 수업권을 가진 학생들이 공개강의, 질의응답 등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채용을 위한 한 방편으로 여겨지고 있느나 이번 교수채용에서 학생참여 부분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공개강의나 질의응답이 이루어진 과는 신문방송학과, 경제학과,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등 일부 몇몇 학과에 불구하다. 또한 공개강의를 하더라도 학생들의 평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교수채용이후 어쩔수 없어 학생들이 수긍하게끔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총학생회 교과위원장 이석종(불교4)군은 "교육은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인 것이지 일방적 전달의 과정이 결코 아니다"며 학습자로서 교수임용과정에 대한 학생참여의 정당성을 얘기한다.

이를 위해 과단위부터 교과위가 조직되어 채용분야부터 결정한 후, 학과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 몇몇 '힘'있는 교수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한다.

투명한 채용과정이 해결책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중 핵심적인 사안으로 유능한 교수의 확보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어떤 교수가 채용되느냐에 따라 그 대학의 학풍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사가 공개되지 않고 명확한 기준없이 교수가 채용되어 인맥과 파벌에 의한 채용이라는 의혹이 팽배한 지금의 모습은 교수채용의 중요성을 망각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학교측이 학과심사결과를 중시하고 모든 채용 과정 및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투명성'이 정립된다면 고쳐질 수 있다. 또한 학과심사에서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학생참여의 수위를 엄격히 규제해 학생 또는 학습자로서 학과·학교 당국의 심사를 감시하게 된다면 모든 의혹은 사라질 것이다.

투명한 교수채용으로 그동안 쌓인 학생·교수간 불신이 사라진다면 대학발전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곽주영 기자〉

◇ 교수채용의 새로운 방향

공개세미나, 교수계약제, 채용점수공개 등 채용과정의 투명성 뒷받침 제도 등장

우수한 교수채용을 위해 각 대학마다 새로운 채용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한림대의 경우 해당 학과 교수를 비롯, 인접 학과 교수들끼리(학생도 참여) 참석한 가운데 자신의 연구논문을 강의하고 교수들에게 질문을 받는 공개세미나를 작년 2학기 부터 도입했다. 교수임용에 있어서 후보의 강의능력, 발표력, 전공의 이해정도 등 객관적 평가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들간의 이해 증진과 학문 교류를 위해 유용한 평가제도로 여겨지고 있다.

경희대의 경우 작년에 채용된 교수들을 대상으로 교수계약제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교수계약제는 계약기간동안의 이들의 연구 업적과 교육, 봉사의 정도에 따라 정식 교수임용을 결정하는 일종의 인턴제라 할 수 있다.

홍익대는 신규교수 채용과정에서 해당학과 교수들은 서류 심사후 1차 면접 대상자를 모집정원의 3배수로 선발하고 전공일치 여부만 의견서로 작성해 인사위원회에 넘긴다. 교수채용에 있어서 재단이 참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총장도 1, 3차 면접때 인사위원의 한사람으로 참석할 뿐 모든 과정은 인사위원회와 교무처, 연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또한 교수채용이 최종 결정되면 최종합격자의 이름과 출신학교 등을 국내 주요일간지에 공개해 정실개입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있다.

조선대는 연구실적 심사위원회와 학위논문심사위원회가 교수 임용 심사를 맡고 있는데 최고 득점자 3인을 학위논문 중심으로 최종 공개 강의 심사를 실시하며 이때 4명의 학위논문 심사위원중 1명 이상은 타학교 교원이 맡음으로써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인천시립대는 채용결과를 시정 소식지에 공고하며 최종 임용자들의 최종점수까지 자세히 공개해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과시하고 있다.

〈취재부〉

◇ 교수채용 사례 - 한의대

소위원회 구성 학생참여 보장 공개강의 평가부터 차근차근 계획

한의대 부회장 김정기(본2)

신규교수 채용시 학생참여를 보장받기 위해 지난학기 동안 노력했던 한의대 동의 결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한의대 부회장 김정기(본2)군을 만나 들어보았다.

-지난학기 해부학 교실 강사 강의능력 문제가 거론되어 한의대에 교수채용문제가 본격화 된걸로 아는데, 발단이 된 문제점과 경위는.

=먼저 한의대의 특성인 교실제 운영중 해부학 교실에서 ○○○ 강사의 강의평가가 학생들에게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그것을 주임교수에게 건의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주임교수가 확답을 유보한채 ○○○ 강사의 채용문제를 다시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에 본과 1학년은 비대위를 결성, 수업거부에 들어갔고 전체적 학생운동을 통해 주임교수 퇴진운동까지 이어졌다.

-지금 상황에서 확정된 결과에 대해 점검해 보면.

=교수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실력없는 강사를 배제하고자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소위원회는 강사채용시 해당교실 주임교수와 보직교수를 제외한 한의대교수들로 구성한다는 것을 약속 받았다. 하지만 문서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강사채용문제를 통해 학생참여를 보장 받기 위해 행해진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먼저 본과 1학년의 비·대·위 결성과 수업거부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강사의 채용의 문제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한의대 교육환경의 문제로 인식하고 학생들과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한 주임교수의 퇴진 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

-소위원회에서 교수채용시 학생들의 참여보장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눈에 띄지 않는데 앞으로 추진될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구체적으로 공개강의 시행을 우선으로 한다. 2학기 내년 교수채용을 시작으로 공개강의를 통해 학생참여 요구를 할 계획이다. 서류심사 공개를 통해 교수 50%, 학생 50%로 하는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올해안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 학기는 학생들의 공개강의평가부터 하고자 계획중이다.

-지난 신규교수 채용에 관한 문제는 비단 한의학과만이 아니라 본교 타과에도 해당되리라 보는데 타과와의 연계문제등은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사실 연계문제는 생각해 본적이 없다. 지난 강사채용문제는 교실제 운영이란 한의대 특성의 교육환경을 고려해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이다.

〈신형섭 기자〉

뒷골만필

육이구씨의 4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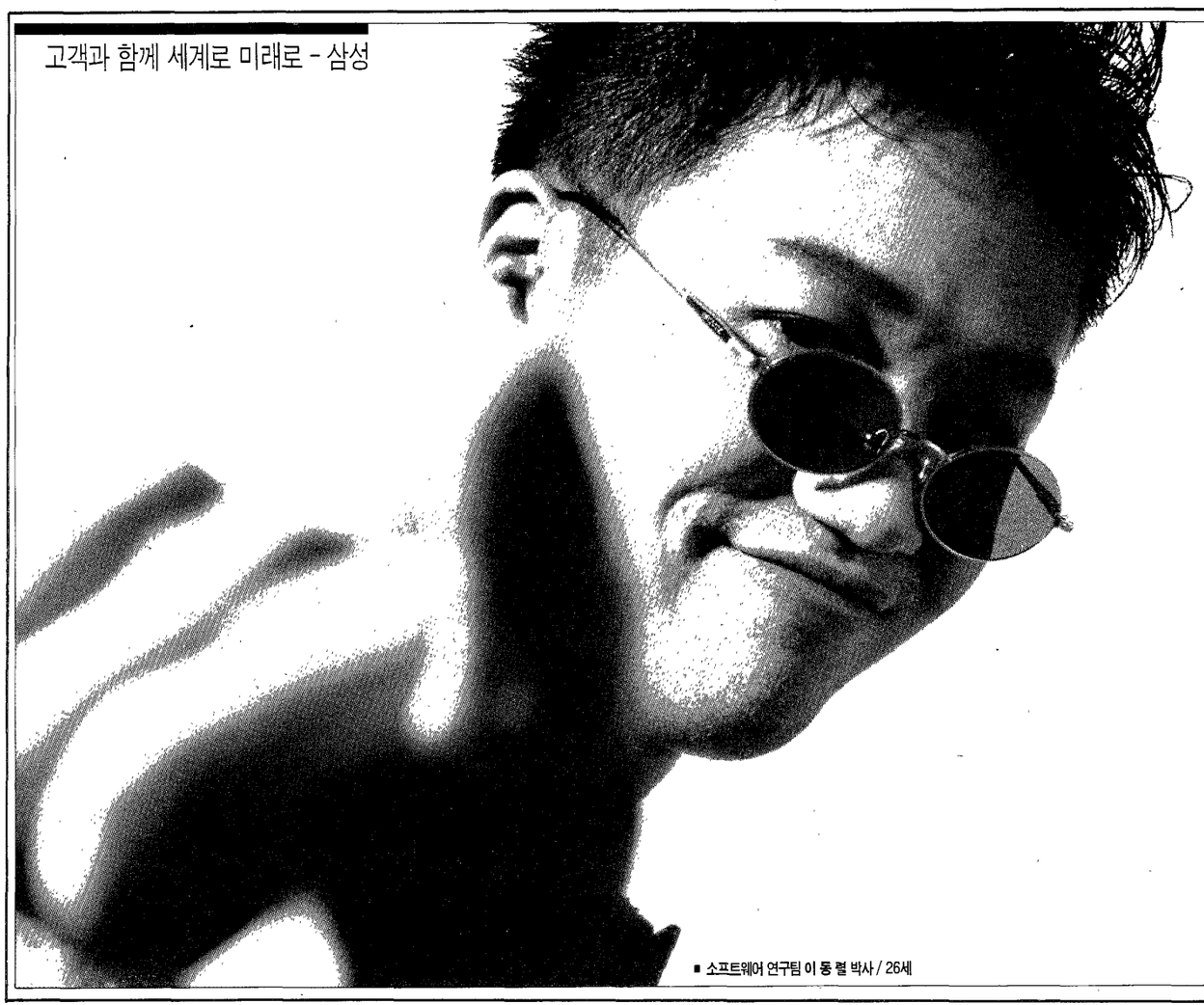
남 선

식사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빴던 전직 고위공직자 갑(甲)은 요즘 등산으로 소일을 하고 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위세가 당당하던 갑(甲)이 만나는이 없이 등산이나 하게된 것은 순전히 그의가벼운 입때문이었다.

갑(甲)이 이렇게된 사연인즉… 몇달전 2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가져왔던 전직 공직자 을(乙)이 제안을 해왔다. 10여년전 잘나가는 부서에 있을 당시 그렇고 그런 방법으로 4억원을 만들어 감사를 피하기위해 예금주 명의를 육이구씨로 했는데 지금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이 돈을 찾을 길이 없느냐는 것이었다. 을(乙)이 공직에 있을 당시 각종 비리에 연루됐고 결국 이 때문에 퇴직을 한 사실을 알고 있는 갑(甲)은 이 부탁을 단호히 거절했다. 그러나 을(乙)이 이문제가 해결된다면 반을 준다는 제안에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거금의 혼상에 젖은 갑(甲)…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즐닿는 곳이란 곳은 다 알아본 결과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을(乙)에게 이 사실을 통고했다. 그런데 사단이 났다. 갑(甲)은 꽁돈을 놓친것이 못내 아쉬웠던지 부서 회식자리에서 이 비밀아닌 비밀을 술김에 말해버렸고 이야기가 감찰반의 귀에 들어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을(乙)의 추종세력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감찰반은 쾌재를 부르며 을(乙)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을(乙)은 자신의 추공자들을 동원해 감찰반활동을 방해했고 감찰반은 증거라고는 갑(甲)의 말뿐이라 을(乙)을 소환조사하는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이문제가 공직전체의 이야기 거리가 된만큼 중도에서 조사를 중단할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실세인 갑(甲)을 소환 조사했다. 사단직후 을(乙)과 이미 작전회의를 마친 갑(甲)은 술김에 한 농담이라며 초점을 흐렸으나 이를 믿는사람은 거의 없었다. 감사반과 갑(甲)은 결국 청사앞 밥집주인까지 동원해 이말이 시정잡배들이 밥집에서 한 소문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밥집주인은 유언비어 유포혐의로 즉심에… 갑(甲)은 공직자의 품위를 잃었다는 이유로 일년간 정직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이 사단을 마무리했다. 그후 누구도 혼자서는 역부족이라는 이유와 자칫 지금까지 이 뤄논 자신의 조그마한 성이 무너질까봐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않았다. 다만 평소 갑(甲)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언행을 익히 아는 이들이 이 사단을 안주거리 삼고 있을 뿐이다.

불교방송 기자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 소프트웨어 연구팀 이 동 렬 박사 / 26세

그대가 이룰 수 없는가?

21세기의 꿈,
한국의 꿈,
그리고 그대의 꿈을

젊음, 패기, 도전, 창조, 미래예감.
모두 SDS에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까?
SDS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의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SDS가 발쳐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는 회사
개인의 성장을 생각하는 회사
미래를 펼칠 넓은 터를 갖춘 회사
바로 SDS입니다.

■ 사업분야 시스템통합(SI 컨설팅, BPR, MIS, EIS, CIM), 시스템종합관리 (SM), 정보통신, 정보기술교육, CAD/ CAM, GIS, S/W, PC통신
■ 솔루션 Open System, Downsizing, Client/ Server, Multimedia, Window GUI등 최신기술 구현

정보기술 서비스 전문회사
SAMSUNG
삼성데이타시스템

◇ 2학기를 시작하며, 총장에게 듣는다

이성적 교육풍토 위에서 새로운 대학문화 건설

동국 특성 살리는 불교적 분위기 조성할 터

대학발전기금 모금에 해외동문 성원

송석구총장이 취임한지 반년이 흘렀다.

2학기 개강을 맞아서 제3캠퍼스 불교종합병원건립등을 추진하고자 21세기 기획단을 발족하는등 지난학기 학교발전 계획들을 제시했던 송총장을 만나 구체적 실천과 학교발전 전망을 듣는다.

-총장 취임이후 지금까지 그간의 한학기 활동을 나름대로 평가한다면.

=그동안 정신없이 살아온 듯 합니다. 교수·직원·학생들의 참여와 지지에 의해서 새로운 동국, 신나는 동국, 진취적인 동국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학사행정이나 내외환경개선등에 다양한 변화와 개혁을 시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교직원·학생이 하나되면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님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준비단계에 결실을 맺고 2학기부터는 실천단계로서 지속적인 열매의 결과를 성숙시키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방중 진행된 LA·뉴욕·토론토의 동문회 방문 성과는.

=각 동문회를 방문하여 학교발전에 대한 협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총22만불을 모금, 동문회장들을 중심으로 본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동국을 사랑하는 충정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발전기금을 선뜻 내놓으신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국인들의 사회적 기반이 여느대학 못지않게 견고함을 느꼈고 이는 동국의 긍지와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학기 동국발전의 구체적인 상은.

=먼저 지속적인 교육개혁, 명랑한 캠퍼스의 환경개선, 이성적인 학생 활동의 개방과 지원, 행정쇄신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교육개혁'구현은 내년 대학종합평가 대비뿐 아니라 새로운 교육문화, 세계적인 변화추세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위함입니다.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서 96학년도 신입생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커리를 확정, 행정규정정비를 끝낼 예정입니다.

유사학과의 통합은 대학 학과의 세분화를 극복하고 시대에 적응하는 양질의 교육을 지향합니다.

이는 열린교육을 향한 수요자의 선택폭을 넓히고 새로운 정보사회에 적응하는 대학생을 배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사학과목이 많은 학과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발적 참여에 의한 통합을 바랍니다.

한편 일부 우려하는 사범계열의 통합은 국가가 사범대 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때까지 혼란을 가져오는 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학당국의 방침입니다. 등록금차등제는 현재 연구단계에 있으며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내년에는 재외교포 및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및 선구현을 중심으로 하는 여름대학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둘째, '명랑한 캠퍼스 환경개선'을 위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노후된 도서관·교수회관의 모습을 일신하고 학림관주변등 조경사업을 통해 정서순화를 이끌고자 합니다. 명랑한 캠퍼스 환경은 강의실에서 금연, 게시관용규정준수등 학생이 만드는 것이고 교수와 학교가 최대한 지원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동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불교적 분위기조성을 위한 가시적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본인은 학생운동을 참다운 대학모습속에서 참여와 활동이라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이는 성숙한 대학생활의 기초로써 학칙과 질서를 중심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이뤄질수 있도록 고민과 토론을 함께 할 것을 다짐합니다.

축제역시 낭비적인 것보다 본교 특성을 살리는 불교, 민속, 한국문화등 동국을 연기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전동국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에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을 할 것입니다.

네번째의 '행정쇄신 기반구축'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대학은 교수, 직원, 학생으로 구성, 실질적으로 교직원이 행정을 담당하게 되므로 종래 갈등도 없잖아 있었으나 지난학기부터 우리는 행정에 있어 봉사라는 입장을 확인하고 봉사행정을 추구하기위한 교직원의 자질향상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를들면 컴퓨터·영어교육, 그리고 교직원의 안목을 넓히고 실질적인 어학연수를 위하여 자매대학으로 10명의 직원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러한 견문을 통하여 질높은 참봉사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18일 열린 학사보고회에서도 발표한바 있는 '대학원 중심대학'의 방향은.

=점차적으로 우리동국대는 대학원 중심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대학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특성화가 1차적조건으로 각대학의 논의를 거쳐 본교특성을 살릴수 있는 대학원 중심대학방안을 단계적으로 실현할 것입니다.

-10월 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이사장의 상을 제시한다면.

=우선 학교를 잘알고 지원할수 있는 도덕적이고 경륜있는 분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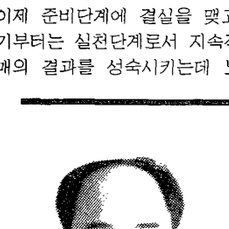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전동국인에게 하고싶은 말은.

=이성적인 교육풍토를 위해서 새로운 대학을 만드는 역사적 기초가 된다는 생각으로 총화단결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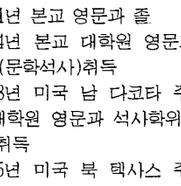
(김소영 기자)

1995 2학기 신규교수 프로필

▲박윤희 (문과대 영문과 전임강사)
·81년 본교 영문과 졸
·84년 본교 대학원 영문과 석사학위(문학석사)취득
·88년 미국 남 다코타 주립대학교 대학원 영문과 석사학위(문학석사) 취득
·95년 미국 북 텍사스 주립대학교 대학원 영문과 박사학위 (문학박사) 취득
·18세기 이전 영문학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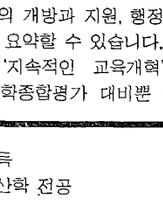


▲오태석(문과대 중문학 부교수)
·80년 서울대학교 중문학과 졸
·8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중문학과 석사학위(문학석사) 취득
·9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중문학과 박사학위(문학박사) 취득
·중국어/중국시가 비평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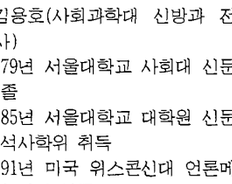


▲양기주(이과대 전산통계학군 전임강사)
·82년 한양대학교 공과 대학 졸
·84년 위스콘신대 전산과졸
·86년 미시간대 전산과 석사학위 취득
·91년 텔라웨어대 전산과 박사학위 취득

▲김용호(사회과학대 신방과 전임강사)
·79년 서울대학교 사회대 신문학과 졸
·85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문학과 석사학위 취득
·91년 미국 위스콘신대 언론메스컴학 박사 취득
·신문방송학, 매스컴이론 전공



▲송일호(경상대 경제학과 전임강사)
·82년 본교 경상대 경제학과 졸
·86년 미, 콜로라도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학위 취득
·93년 미, 콜로라도대 대학원 경제학박사학위 취득
·노동경제학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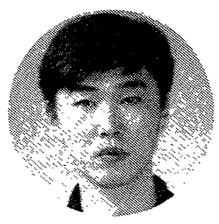


▲김정유(경상대 경제학과 조교수)
·84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경제학과 졸
·85년 미, 미시간대 경제학과 경제학 석사학위 취득
·92년 미, 스탠포드대 경제학과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1995 2학기

·이론경제학, 게임이론, 법경제학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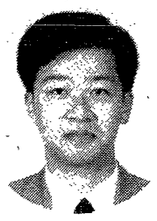
▲권익현(경상대 경영학과)
·85년 고려대학교 경영대 경영학과 졸
·87년 Illinois대 석사학위 취득
·91년 Purdue대 박사학위 취득
·마케팅(시장조사론)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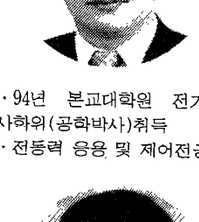
▲유창조(경상대 경영학과 조교수)
·81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
·87년 Oregon대 석사학위 취득
·91년 아리조나대 경영학박사학위 취득
·마케팅(광고학)전공

▲권동희(사범대 지리교육과 전임강사)
·80년 본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과(지리전공)졸
·83년 본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 (문학석사) 취득
·88년 본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 (문학박사) 취득
·지리학 방법론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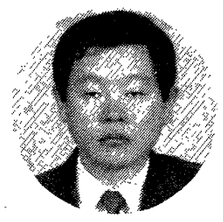
▲김진선(경상대 회계학과 전임강사)
·80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
·8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90년 어스틴 택사스대 회계학 박사학위 취득
·재무회계 전공



▲박현창(공과대 전자공학과 전임강사)
·86년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
·89년 Cornell대 전기공학석사학위 취득
·93년 Cornell대 전기공학박사학위 취득
·전자공학 화합물 반도체 전공



▲김용(공과대 전기공학과 조교수)
·81년 본교 전기공학과 졸
·83년 본교대학원 전기공학과 석사학위(공학석사)취득
·94년 본교대학원 전기공학과 박사학위(공학박사)취득
·전등력 응용 및 제어전공



▲고진호(사범대 교육학과 조교수)
·81년 본교사범대학 교육학과 졸
·86년 본교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학위 취득
·94년 본교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학위 취득
·교육과정 전공

▲신혜원(사범대 가정교육과 전임강사)
·82년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졸
·8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 (가정학석사) 취득

·9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박사학위 (이학박사) 취득
·의류학 및 가정학 연구방법 전공

▲정무환(법명:성본) (불교문화대 불교학과 전임강사)
·80년 본교 불교대학 승가학과 졸
·85년 일, 고마자와대학 대학원 문학석사 학위 취득
·89년 일, 고마자와대학 문학박사 학위 취득
·초기선종의 성립사전공

▲이충기 (상경대 관광경영학과 전임강사)
·86년 세종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
·89년 Floida International대 호텔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92년 Texes A&M대 관광학과 관광학 박사학위 취득
·관광경영학 전공

▲김준기 (한의과대 한의학과 전임강사)
·91년 본교 한의과대학 졸
·93년 본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한의학 석사)취득

·한방병리학 전공

▲김종대 (한의과대 한의학과 전임강사)
·87년 본교 한의학과 졸
·91년 대전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일반수련의 과정 수료
·92년 대전대 한의학대학원 내과 석사학위 취득
·93년 대전대학교 부속한방 병원 전공의 과정 수료
·한방내과 임상교수

▲김영규 (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80년 서강대학교 생물학과 졸
·86년 서강대학교 생물학과 석사학위 (동물 생리학) 취득
·91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동물생리학) 취득
·의학과 생리학과 전공

▲강영모(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86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
·89년 경북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의학석사학위 취득
·95년 경북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사과정 수료
·내과(혈액 종양학)전공)

(이상 20명)

알 림

'조용하고 깨끗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지난 '95학년도 1학기에 시범실시한 학내 게시물의 정비에 관한 시행을 이번 2학기부터 아래와 같이 정식 시행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처의 허가를 받지않은 외부 광고물은 부착할 수 없습니다.
2. 용도에 따른 용지의 규격을 지켜 주시고 게시기간을 명시하기 바랍니다.

크 기	용 도
전 지	학내 각 기구의 옥외 홍보용
2 절 지	학내 각 기구의 옥내 홍보용
4 절 지	학내 각 기구의 옥내 홍보용, 동문회 알림용

* 용지는 각 단과대학 교학과에서 배부합니다.

3. 현수막은 설치자가 철거하여야 하며 설치기간은 10일을 넘지 못합니다.
4. 설치대 이외에 나무등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5.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게시물과 현수막은 제거합니다.

학 생 처 장

교육실습안내

'95학년도 2학기 교육실습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교육실습기간: 1995.10.2(월)~10.28(토)-4주간
2. 교육실습 신청기간: 1995.9.4(월)~9.6(수)
3. 대상 및 자격: 사범대학생이나 교직과정 이수중인 자로서 '96년 2월 졸업예정자
4. 교육실습비: 35,000원(사범대학생 제외)
5. 신청부서: 사범대학 교학과
6. 교육실습 신청자는 사범대학 교학과에 비치된 신청서 및 동의서를 미리 준비하여 실습비와 함께 기한내에 접수하기 바랍니다.

사 범 대 학 장

교사편찬자료 수집공고

본교는 내년 5월8일로 개교 90주년을 맞게 됩니다.

이 뜻깊은 개교 90주년을 앞두고 본 교사편찬실에서는 본교의 발전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동국 90년지를 편찬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교사(校史) 전반에 관한 자료를 널리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국 90년사는 물론 우리나라 근대교육의 변천과정을 재조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나아가 동국 내일의 창조적 지평을 여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동국가족 여러분이 애장(愛藏)하고 계신 자료를 제공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1. 수집내용
   1)제한없음(동대 90년에 걸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진·서류·기념물 및 인쇄물 등 기타 모든 자료)
   2)접수된 자료중 전시할 가치가 있는 것은 기증자 표시와 함께 교사편찬실에 영구 보관하게 되며 인쇄물 서류 등은 90년지에 게재됨.
2. 접수기간
   수시접수(월~금, 오전9시~5시)
3. 접수장소
   우편번호 100-715, 서울 중구 필동3가 26 동국대하교 교사편찬실

자세한 것은 교사편찬실(260-351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편찬실

총학생회 진군식

2학기 투쟁 결의의 장

95학년도 2학기 총학생회(회장=안진우·국교4)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총학생회 진군식'이 다음달(9월)5일 치뤄질 예정이다.

이번 진군식은 △방학동안 흐트러진 골간체계를 바로 세우고 △2학기 투쟁을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벌여낼 것에 대한 대중적 결의의 자리로 만들며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를 주동적으로 맡아 투쟁의 한 흐름으로 복무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학생회는 각 단위에 △2학기에 대한 상을 수립, 일꾼과 공유하는 자리 확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선전방식 동원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행사를 살펴보면 한학기 단위의 발전의 작물을 튼튼한 알곡을 맺을 수 있게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한가위 마당, 각 단위와 동악의 발전상을 학우들과 공유, 실현하고자 결의하는 마당인 학자마당, 그리고 실천마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총학생회는 이번 진군식을 위해 포스터, 동악 역사 사진전, 단위의 요구안을 담은 입간판 설치, 백지대자보, 설문판 등을 준비하고 있다.

신설과 학회실 임시 설치

공간 협소 등 문제점 지적돼

학과신설의 문제점을 가시적으로 드러내 논란이 많았던 신설학과(중문, 신방, 광고)들의 학회실이 지난 8월초 동국관 5층로비에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학회실은 지난 학기말에 있었던 학회실, 교과과정, 전임교수의 부재등, 신설학과의 제반 문제에 관한 야간강좌 총학생회(회장=황인구 영문3)와 학생처(처장=곽준규·교육학)의 합의서에 따라 학술문화회관이 완공되는 내년 2월말까지 임시로 사용된다.

신설학과 학생들은 공간의 협소함과 도서관과의 근접에 따른 도서관 이용학생들과의 마찰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번 주중에 학회실 입방식이 치뤄질 예정인데 야간강좌 총학생회장 황인구군은 이번 입방식에 대해 대책없는 학과 신설의 병폐를 알리고 막아내는 계기가 되게 할 것이라며 결의를 밝혔다.

◇진상규명하자는데…법적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장충단 공원에서 열린 '5·18학살자 처벌을 위한 제3차 국민대회'가 끝난 후 행사장에 전경들이 난입, 폭력을 행사해 많은 학생·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박대웅 기자〉

학생회관 공사 난항

동연·학교 연구분과동아리 이전등 합의 못해

동아리 연합회(회장=김용욱·화공4)는 학교측의 학생회관 공사안에 대해 △동아리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연구분과 이전계획 △학우들의 참여없는 일방적인 학교 공사안 △자치공간 축소초래 등의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학생회관 공사를 반대하고 있다.

동아리 연합회는 △각 분과의 특성에 맞는 공용공간 확보 △동아리의 이해가 반영된 효율적인 규격화 및 재배치를 공간문제 해결의 원칙으로 삼았다.

이러한 반대입장과 해결원칙의 내용을 담은 '공간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개진운동 자료집'을 통해 각 동아리 3인을 대상으로 오는 2일까지 의견개진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학생과(과장=선상규)는 "세부 설계도까지 다 마련된 상황에서 동연측과 합의가 이뤄지지않아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연구분과 동아리 이전에 대해 "실제로 동국관의 연구분과 동아리는 활동이 거의 없고 개인 도서실화 되어 있다"라고 밝히고 "동아리연합회 내부규정인 3개 단과대 5개학과 20명이상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전 동아리의 이전을 공간부족이라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말했다.

공관위, 다향관·동국관 식대 인상

식단의 다양화와 질개선 위해

복지사업 공동관리위원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하 공관위)는 8월부터 다향관과 동국관 학생식당의 메뉴를 다양화하면서 식대를 7백원에서 1천5백원까지로 확대시켰다.

이번 인상은 8월부터 1달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식대의 현실화에 따른 인상이라기보다는 다양하고 질좋은 식사를 학생들에게 제공코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됐다.

또한 식단의 다양화와 질개선으로 이용학생의 수를 늘려 운영상 적자의 폭을 줄이는 방안도 된다. 공관위는 원가절감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재료의 직구매를 실시해 전체매입의 7%, 야채류 매입의 25%를 감소시켰다.

음식의 맛보다는 환경과 서비스등의 증시되는 새로운 식당운영방안이 도입되면서 공관위는 시설의 개보수와 환경개선을 시작했다. 그 시행책으로 올해는 정수기 구입, 내년에는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번 겨울을 이용하여 다향관과 동국관 식당의 개보수를 실시할 것이다.

공관위는 이후 보다 합리적인 식당운영을 위해 학생모니터제도를 고려중이다. 모니터 요원은 단대별로 10명가량으로 구성하여 매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운영에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한가위 마당 개최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이승현·산공4)는 오는 9월5일 한가위 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다.

학복위는 2학기를 맞이하여 학생들간의 화합과 단결뿐아니라 학내 구성원인 교수, 학생, 직원의 화합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한가위를 맞아 우리곁에서 사라져가는 전통놀이문화를 알리는 계기를 갖고자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지는데 1부에서는 제기차기, 윷놀이, 자치기, 널뛰기등의 우리놀이를 2부에서는 떡과 식혜의 우리 먹거리를 도서관을 중심으로 펼칠 예정이다.

또한 행사중 1학기 평가와 결산, 2학기 계획과 생협에 대한 홍보내용의 귀향신문도 총학과 연계하여 발간할 계획이다.

총장 후보 추천관련 규정 일부 개정

외부인사 영입 가능, 선관위 권한 강화

총장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이 지난 18일 열린 교수회(회장=이순용·법학)총회자리에서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후보자격 심사권 및 선거운동의 공정성 보장과 과열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권 부여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로 공정성·합리성을 보장하고 △입후보자 자격의 다양화로 유능인사에 대한 문호개방 △총장을 제외한 보직교수가 총장후보에 출마하는 경우 총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6개월전까지 보직사퇴 △본교 전임교수 2년이상 근무한 자로 선거권자의 자격제한 △입후보자 등록일을 후보자 선거일 14일전으로 하고 선거일 및 장소 공고를 선거일 20일전으로 조정등이 바뀌었다.

주목할만한 것은 총장 입후보자 자격에 교육경력이 없어도 재직교수 20인 이상이거나 재단이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를 추가함으로써 외부인사 영입의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이번 총장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해 이순용교수회 회장은 "지난번 선거시 보완해야할 부분을 개정했고 총장 후보자격을 완화함으로써 외부유능인사는 영입할 수도 있다"며 유능한 외부인사를 영입해 민주적인 대학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수회정기총회에서는 서울캠퍼스 교수회 부회장에 오홍석(지리교육)교수와 감사에 김한(영어영문학)교수가 새로 선출됐다.

2학기 학사보고회

21C 기획단 발족등 보고

95학년도 2학기 학사보고회가 지난 18일 오전10시 앰버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오녹원 이사장과 송석구 총장, 교수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송석구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개혁에 대비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희망대학에 한해 대학원 중심대학 정책을 계획중"이라며 방중 해외자매대학 순방 결과를 발표했다.

각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기획조정실(실장=성용길·화학)은 21세기 기획단 발족, 대학종합평가 변경승인과 준비현황, 송총장 미국 자매대학 순방, 규정집 발간, 해외 대학과의 학생교류등을 보고하고 "경영·회계·무역학과의 학과평가 결과발표는 내년 2월예정이며 내년 5월로 연기된 대학종합평가계획 대비해 종합평가연구 위원회실을 상설운영, 각 행정부서별 시행과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경원 후원회원 발전기금 전달

역경원 후원회(회장=강성구)회원 이상현(봉선사 신도회 총회장)씨는 지난 7일 역경원측에 발전기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김성구 역경원장은 "역경원 발전기금 1호로 기록될 이번일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감사를 표시했고 이상현씨는 "불교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법과대학생회 농활기간 법활 실시

법과대학생회(회장=나상원·법4)는 지난 방중 농활기간에 학생15명이 참가한 가운데 봉양읍 농민을 대상으로 법활을 실시했다.

이 기간동안에 법과대는 농활이 끝난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법률상담을 했다.

학생회장 나상원군은 "법을 잘 모르는 농민을 위해 마련됐다는 것에도 의의가 있었지만 학교에서만 배우던 지식을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기회도 되어 더욱 좋았다"고 밝혔다.

직원 정년퇴임식 지난 23일 총장실서

직원정년퇴임식이 지난 23일 오전 11시에 총장실에서 있었다.

정년퇴임자는 동국발전협의회의 강창순, 이시우, 총무과의 김문일, 용호중씨등이다.

직원 해외 행정연수 자매교인 메인대에서

'직원 해외 어학 및 행정연수'가 교무과 박동수계장 등 직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5일부터 어제(27일)까지 총 23일간 자매대학인 메인대학에서 실시됐다.

본교 최초의 장기연수인 이번 해외연수는 '행정직원에게 메인대학의 선진행정시스템과 운영방식 견학과 행정 관련 어학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연수 후 학교행정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치뤄졌다.

연수내용을 살펴보면 월, 수, 금요일은 영어 읽기·쓰기·문법·회화 및 행정업무 관련 영어수업 등 어학연수가, 화, 목요일은 행정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청취, 행정부서 방문 및 견학, 행정처리 절차 질의응답, 실제 행정관련 연수 및 활동등의 행정연수가 실시됐다.

연수경비는 특별기금에 의한 교직원 해외연수에 관한 내규에 의거해 1인당 2백만원씩 지원됐으며 연수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동수(교무과) △김계현(관재과) △황의돈(법과대학 교학과) △송익균(인문과학대학교학과) △이상기(법정대학 교학과) △김영수(취업과) △김청옥(학술교류부) △이경식(총무과) △한동주(경주캠퍼스 장학과) △윤주성(경주캠퍼스 열람과)

회·전·무·대

실내수영장

○…때아닌 장마와 갑작스런 보수공사로 학교 건물이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빗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데.

특히 사범대는 건물내에 빗물이 많이 고여 그 건물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더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이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회전무대자 왈 "건물 밖에는 폭포를 짓더니 건물 내에는 수영장을 지으려나."

긴급출동

○…외양간을 고칩시다!

지난 24일 2시30분께 공대앞에 119에서 소방차와 응급차등 여섯대의 차가 출동을 해 동악을 잠시 긴장시켰다는데.

알아본즉 공대 건물에 가스가 샌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특히 공대 건물에는 가스누출에 대한 안전시설이 없어 일일이 검사를 한 후에야 허위제보인줄 알았다는데.

안전점검후 철수하는 소방차를 보며 한 학우왈 "소잃기 전에 미리미리 외양간을 고쳐놓아야 할텐데…."

치장 그 이후는?

○…고향집으로 귀가했다가 개강을 맞아 돌아온 학생들 다소 변모된 학교 모습에 적잖이 놀란 눈치.

깨끗하게 단장된 교내 풍경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지만 아직도 근대적인 강의실의 모습은 우리의 정신을 혼란케 한다고.

한껏 단정한 캠퍼스 환경도 제멋이지만 실험실습기자재등 실속있는 학습자료를 확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며 볼멘 소리하는 학우 있어.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옷잘입은 거지 잘 얻어먹는다는 말이 있으니 기대해볼직도"

온실속에 자란 망나니

○…온실 속의 화초(?)

성역으로 대우받던 한국은행, 공신력이 흔들리는데.

이유인즉, 한국은행은 이번에 대규모 지폐 유출 사건을 일으켜 허술한 구조체제임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신뢰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한은의 독립은 정부와 국민 품에 곱게만 자란 자식 출가가 아닐지.

이에 본 회전무대가 한마디 "온실 속에 자란 자식, 이대로 독립하면 망나니(?)"

이젠, 개강타령만 남았다!

※지하철 종각역과 직접 연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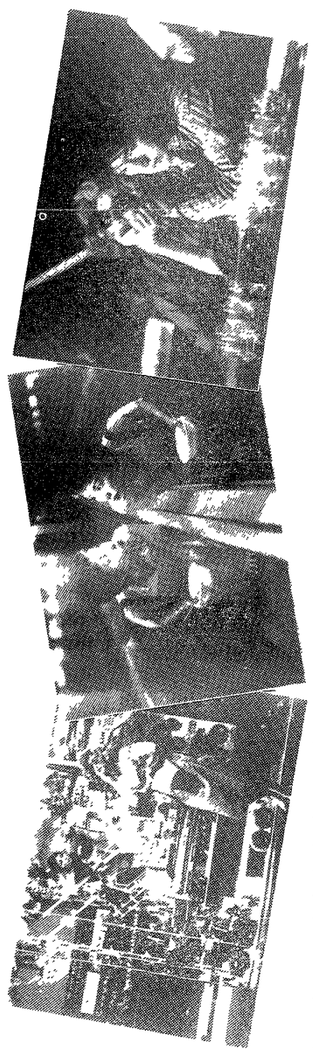
영풍문고에는 신학기 대학교재와 전문서적, 최신 외국 원서교재까지 모두 한자리에 있습니다.
- 넓은 매장이 훨씬 여유있고 쾌적합니다.
- 효율적인 매장구성으로 책 찾기가 가장 편리합니다.
- 가장 많은 전문서적, 교양서적이 있습니다.
- 대형 문구점과 음반점, 컴퓨터광장 등 부대시설이 완벽합니다.

국내최대의 영풍문고는 모든 책이있는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국내 최대의 대형문구점, 대형음반점, 컴퓨터광장, 문화행사장, 휴식공간까지 한자리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영풍문고 — 영풍문고에서 새로운 신학기를 준비하세요.

세계로 향하는 대형서점
영풍문고
영풍본점 : 399-5600
평 촌 점 : 0343-88-1161

영화의 패러독스 — 왕가위감독과 그의 작품에 대해

홍콩 영토반환 관련된 '시간의식'뚜렷



정 재 형
(예술대 연영과 교수·영화평론가)

홍콩영화감독 가운데 그래도 최후로 남은 예술작가. 왕가위의 영화는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가득차 있다. 왕가위 영화는 세기말적인 분위기를 그려낸다. 1997년 불과 2년앞으로 다가온 홍콩의 영토반환. 그에게 있어 '시간의식'은 가장 '홍콩적'인 세기말적 의식이다. 그의 정체성이며, 미래에 관한 가장 심오한 질문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왕가위의 영화는 소비로서 보다는 생산을, 오락으로서 보다는 성찰을 요구한다. 그의 생산방식은 홍콩이 최근 벌여놓은 오락산업으로서의 여러 장르적 양식을 새롭게 주관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그의 영화는 구태의연한 홍콩 누와르, 무협, 뻔한 청춘남녀의 사랑이지만 종래의 느낌과는 퍽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잘 포장되어진 느낌 보다는 어느 한 부분이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서 주관을 분명히 한다는 영화적 과잉표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알게되는 새로움이다.

첫작품 '열혈남아' (88)는 홍콩 누와르의 전형적인 구성을 갖고 있다. 갱조직내의 암투, 동생과의 의리, 여자와의 관계, 게임의 법칙에 의해 희생되는 인물, 손을 떼려고 여러번 시도하지만 결국 연루되게 되는 상황. 이러한 골조가 그간 홍콩 누와르 영화의 단골 소재였던 것이다. 고전 장르에 대해 왕가위는 아무 거부감없이 일단 받아들인다.

그러나 영화적 과잉표현은 종래의 방식과는 다르다. 왕가위가 추구한 것은 결코 총싸움이 아니라 사랑의 순간을 포착하고자 한다. 총격전으로 대표되던 홍콩 누와르에 사랑의 감정을 더 증시하고, 두번째 영화 '아비정전' (90)은 그럼 점에서 더 심화된 연장선이다. 역시 누와르 장르의 오락적 구조속에 놓여있지만 왕가위는 '아비정전'을 어머니를 찾는 홍콩청년의 젊은 날의 초상으로 변형시켜 놓았다. 또한 칼싸움이 없는 무협영화, 그게 바로 세번째 영화 '동사서독' (93)이다. 무림계에 두 무협이 등장하고 그 둘은 한판 벌일 것처럼 예고되어 있다. 그러나 둘의 싸움은 과도하게 묘사되지 않는다. 대신 그 영화를 지배하는 요소는 자연물과 주변환경을 은유적으로 지시하는 시적인 이미지들의 상징과 철학적 대화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그의 시간의식은 공통되어 있다. 과거에 대한 기억과 망각, 순간에서 영원으로의 회귀의식 등이 섬세하게 강조되고 있다. 그 덕분에 그의 영화를 봐온 많은 관객들은 홍콩영화의 오락적, 표피적 성향에 대한 선입관에서 벗어난다.

최근영화 '중경삼림' (95)에서 왕가위는 거의 즉흥적일 정도로 일상적인 실험적 상업영화의 세계를 분명히 한다. 중경반점이라는 한 고립된 공간을 중심으로 두명의 실연한 경찰관과 두명의 여자가 빌이는 사랑 이야기. 너무 진부한 것 같은 이 영화속에서 왕가위는 또다시 종래의 사랑이야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영화를 이끌어나간다. 이영화에는 특유의 유모어가 숨쉬는데, 진지함을 우스꽝스럽게 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그 유모어는 뼈가 있고 주의주장이 강하여, 마치 비논리적인 부조리 연극을 보는듯 즐거움과 자각을 동시에 제공한다.

◇'오늘의 문학' 시부문 신인상 당선자를 만나

좌절 아닌 이겨냄의 '외로움' 피력

사람들은 모두 다 외로울까?

이러한 물음을 먼저 던져놓고 사람과 시를 이해해보자.

작년 동국문학희 동문 등단에 이어 올7월 시부문에 등단한 송주호(국문4)군의 시세계와 그 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물음의 고민을 시작해 보자는 것이다.

언어적 감각 즉, 시적 감수성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아 송군은 지난 7월10일 계간 '오늘의 문학' 신인상 시부문에 당선됐다.

송군은 현재 재학중에 광고회사에 취직을 했다. 시와 광고, 뭔가 공통점이 있을까? '창작해서 쓴다!'는 점에서 공감을 느낀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절대 시를 고집한다. "내 인생에서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시다"라고 말한다.

그의 옆에는 광고가 있고 시라는 것이 있지만 '외로움'이라는 것도 항상 함께 자리하는가 보다.

"있는자 없는자, 모두 사람들은 외롭다. 그것은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걸 이기고 감출려고 하는 모습들이…"라고 그의 생각을 나름의 시세계라고 말한다.

어딘가 불안하다/입가에 드러난 적의가/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궁금하다. 살아남기 위해/그러기 위해, 그토록 애써서/표정을 버렸는지/짐승은 아무것도/툭툭 털어 버리지 못한다/박제된 듯 멀뚱히 무엇인가를/주시하고 있다.

산업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젊은이의 자화상을 그린 '정물이 아니다'에서 이 젊은이는 바로 꿈은 있으나 불안감을 느끼고 적응하려고 하지만 무기력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젊은이라고 한다.

그 젊은이가 바로 송군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느끼는 인간형일게다.

그러하기에 그의 눈속에는 그리고 시세계 속에는 사람들이 모두다 외롭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어쩌면 문학동향에 유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는 "이제 문학은 80년대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사람이 원초적이다"라고 말하며 "예전과 달리 현재는 하나의 사조가 오래가지 못한다. 2년쯤 밖에 안되는 문예사조에 금방 따라갈 필요는 없으나 시대에 뒤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속에 자존심을 지키는 동시에 아둔하지는 않겠다는 의지와 성격이 열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문학을 하든간에 모든 일에 치열함이 중요하지만, 결코 학생으로서 책임져야 할 것을 간과하지 말기를 당부한다"며 또한 "굴레를 박차야만 결코 넓은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몸담았던 '시선'후배들과 문학후배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외로움을 느끼지만,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고 하지만 그의 외로움은 결코 좌절이 아니라, 견딥과 이겨내는 것임을 그의 말과 시속에서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모두 다 외롭지만 모두 다 고민과 외로움을 견뎌 바로 설 수 있음을.

〈박묘선 기자〉

◇연극 '호모TV쿠스'와 현대인의 모습

대중문화 읽어내려는 기획 신선해

TV중독증 앓는 현대인 비판

·공연: 호모TV쿠스
·작·연출: 김상열
·공연일시: 8월26일~10월3일
·공연장소: 대학로 소극장 오늘

"전 TV앞에 서면 비로소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요. 일종의 삶의 희열이라고 해야 할까요"

텔레비젼을 커놓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이른바 'TV중독증'이라는 병까지 앓는 사람도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연극 '호모TV쿠스' 대사중의 하나다.

이 극은 TV화면을 사이에 두고 얼굴을 맞대는 시청자와 TV스타를 큰 축으로 삼고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무대가 밝아지면 TV시작과 함께 눈뜨고 애국가를 들으며 잠드는 시청자역의 배우가 관객석을 TV화면삼아 웃고 불안해하는 모습부터 보여준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 TV스타감을 낚시질하는 스타제조공장 사장들이 나와 스타제조방법을 가지고 떠들기 시작한다.

'호모TV쿠스'가 나열하고 있는 수많은 장면들—예를 들면 TV를 보는 동안의 시청자는 TV화면의 내용에 따라 울고 웃고, 좋으니까 해보라는 권유는 뭐든 듣는 식이며, TV스타는 카메라 앞에서는 어머니의 죽음앞에 흘리는 눈물도 연기일 뿐이라는, 하지만 약간과장된 것이다—은 자신들이 만든 기계앞에서 어떻게 스스로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지 관객들에게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다.

시청자에겐 한마디의 대사도 없다. 이것은 강제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TV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신의 의사를 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하나의 호모TV쿠스인 TV스타는 대중이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각각 현재의 소모품, 재활용품, 폐기물로 나누어져 등장한다. 현재의 스타는 앞으로 얼마간 쓰여진 히트상품이고 대중의 뇌리에서 지워진 스타는 폐기물이다.

연극적 요소로서의 과장됨이 있기는 하지만 '호모TV쿠스'는 현대인의 단면을 정확히 꼬집은듯 하다. TV화면에 코를 대고앉은 시청자나 TV안에 살고있는 스타에게나 그 메카니즘을 올바로 이용할 '의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연극은 극단 오늘에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 대중문화읽기시리즈의 1편이다. TV, 만화, 비디오등등 대중문화속에서 자리잡은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문화향유자인 우리의 모습을 무대화하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다. 하나씩 세분화 한다해도 엄청난 수의 시퀀스를 찾아낼 수 있는 소재들이며 올바른 방향이 이것이라고 강요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므로 현상나열이라는 비판을 받을수도 있는 기획이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모습을 그리고 있는 또다른 우리를 지켜보는데 1시간20분을 소비하는 것도 좋은 일일듯하다. 이래라 저래라하는 강요나 요구사항은 달리 보이지 않으므로 또다른 '시청자'가 되지 않을까 겁먹지는 마시기를.

〈이유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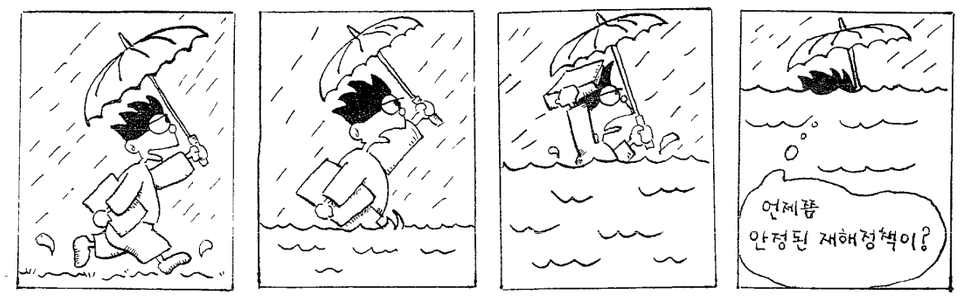
메아리

특별법 제정하라

▲1960년 4·19혁명당시 전국27개대학 2백58명의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을 발표, '4·19로 쓰러진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가행진을 벌였다. 학생, 시민과 더불어 절대적 지지는 물론 또한번의 대대적인 시위를 촉발, 더이상 이승만 정권이 버틸 수 없음을 극명히 한 바 있다. ▲5·18학살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 항의에 교수들 또한 가담했다.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서명에 참여한 대학교수는 78개대학 3천5백60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서명교수들은 사흘간의 농성에 이어 '5·18내란 주동자 구속기소 및 특별법제정촉구' 위한 결의대회'를 가진바 있다. 또한 이들은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등에 관한 법률(안)'과 '헌법·파괴적 범죄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청원한 상태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서명교수가 '지식인'이라는 점을 벗어나 5·18학살자 심판은 이제 전국민적 열망을 보여준다는데서 커다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5·18의 납겨진 과제를 해결하려는 김영삼정부의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지난 16일 장충단공원에서 치뤄졌던 '5.18책임자 기소관철 국민대회'에서 보여준 현정권의 폭력진압은 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우리를 분노케 한다. 합법집회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곤봉에 의해 많은 시민·학생은 물론 취재기자 또한 부상당했고 이날 경찰이 쏜 직격최루탄을 맞은 단국대생이 실명하는 사태를 불렀다. 과연 누구를 위한 문민정부인가. ▲5·18학살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민족역사를 올바로 세워내는 것이다. 80년대 민족민주운동의 시발이었고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무참히 짓밟으려했던 학살자들을 공소시효만료라는 어처구니 없는 면죄부를 부여해서는 안될 것이다. 5·18의 진상규명과 더불어 학살자 심판후에야 5월 광주정신의 올바른 계승을 이룰 수 있다. 현정권이 이문제를 시급히 청산하지 않는다면 5·6공에 기반해 탄생한 정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소〉

서 승 현
〈15〉



중앙일보 창간30주년

섹션신문 중앙일보
전문기자가 만들어
정보의 깊이가 다릅니다.

21세기는 정보전의 시대입니다.
새로운 정보, 다양한 정보, 깊이있는 정보를 가진 사람만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섹션신문 중앙일보는
교통, 증권, 경제, 도시공학, 러시아문학, 군사, 외교, 의학,
뉴미디어, 예술, 환경, 교육,
철학, 조사……
각계 전문가를
전문기자로 선발하여
보다 분석적이고 깊이있는
정보를 드립니다.

이제, 21세기 정보파트너,
중앙일보 전문기자를
만나보십시오.

새아침 새정보 섹션신문 중앙일보

中央日報